

#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의미와 목적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 목차

6591 이전의 성장 과정에 대한 지식.....	4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6
2771 하나님을 창조의 기원으로 믿는 믿음.....	6
3148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증거.....	7
원래 초기에 창조된 영들과 그들의 타락.....	9
7067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	9
7158 창조물이 생성 된 원인.....	13
영적 창조물이 물질적 창조물로 변화.....	16
4097 세상의 창조. 모세. 비유로 말하는 일.....	16
3495 영적 및 물질적 창조물.....	17
7849 창조란 무엇인가? 변형이 된 능력.....	19
8770 창조의 과정은 영원한 시간이 필요했다.....	21
우주 가운데 창조물들.....	23
1919 별들. 서로 다른 광도. 별들의 목적.....	23
7942 창조의 작품인 이 땅의 생성.....	25
이 땅의 창조물들.....	28
1810 창조물. 축소판.....	28
6727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가 언제 자유롭게 되는가?.....	29
인간 형태의 창조물들.....	31
2330 삶의 형편은 혼의 성장정도에 합당하다. 이전의 상태에 관한 지식.....	31
2344 모든 창조의 작품들을 유지하는 혼.....	32
2540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일이다.....	33
3345 창조물의 과정을 여러 번 가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빛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	34
물질을 극복하는 일.....	36
5087 세상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물질의 극복.....	36
7108 하나님이 허용하는 기쁨. 창조의 기적.....	37
창조물을 변화시키고 파괴하는 일.....	39
2313 일찌기 파괴하는 일과 그의 결과.....	39
2910 물질의 변형. 분해. 성장 과정.....	41
8768 어떤 창조물도 무의미하거나 목적이 없는 것이 없다.....	42
새로운 창조물들.....	45

3943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지. 영적인 창조물과 물질적인 창조물.....	45
7268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항상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	46
물질 안으로 새로운 파문을 받는 일.....	<b>48</b>
3255 새로운 성장과정. 영적인 존재의 파문.....	48
4631 굳은 물질을 안으로 새로운 파문을 받는 고통.....	49
새 땅의 창조물들.....	<b>51</b>
4369 새땅. 창조물. 낙원.....	51
6148 새 땅에서 계속되는 성장.....	52
저세상의 영적인 창조물들.....	<b>54</b>
1812 영적인 세계. 낙원의 상태.....	54
3316 영의 나라의 서로 다른 영역.....	54
5703 창조의 목적. 성장과정.....	56

이전의 성장 과정에 대한 지식.

B.D. No. 6591

1956년 7월 9일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에 너희의 혼이 지나온 과정에 대한 지식은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삶을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그들의 혼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지식을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자신의 존재를 관찰해 볼 수 있다. 새로운 관점이 그들에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많은 일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생각하도록 자극할 수 있고 그들의 나중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또한 이런 지식이 진리와 일치하는 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종말 전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다른 자세를 갖게 할 것이다. 이런 지식의 전해서 사람들이 영원부터 자신의 계획을 개관해볼 수 있게 해주는 일은 또한 하나님이 아직 그의 사랑으로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왜냐면 이번 구원 시대의 종말과 함께 저세상 나라의 문이 닫히고 계속 존재하는 일에 새 땅의 거주자로 또는 영적인 존재가 다시 분해가 되어 다시 창조물 안으로 새롭게 파문을 받는 단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이런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혼이 저세상의 나라에서 성숙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성장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말 전의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방법으로 굳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는 일을 피할 정도의 성숙함에 도달하도록 돕기를 원한다. 실제로 이미 영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한 통찰력이

주어 졌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들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거나 또는 특별하게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주었다. 이로써 하나님이 설명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에게 권면과 경고로 전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옛 일을 기억하는 능력을 잃었을지라도 끝없이 긴 혼의 과정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도 또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우려할 수 있고 이런 우려가 그에게 조용한 경고자처럼 항상 또 다시 그에게 나타날 수 있고 이로써 그가 이런 우려에 대해 묵상해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설명이 때로는 또는 사람들의 무지를 채워줄 것이고 그들이 창조자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빠르게 자원하여 받아들여려는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단지 생각을 하고 믿기를 원하지만 믿을 수 있기 위해 논리적 정당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들여려는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굳은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원줄을 던져 주고 그는 또한 그들이 길을 찾게 해서 그들이 지식에 도달하게 한다. 비록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과 혼의 끝없는 성장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또한 이런 지식이 필요한 곳으로 이런 지식을 전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염려를 알고 그들에게 대답해주기 원하고 염려를 제거해주기 원한다. 그가 행하는 일은 무의미하고 쓸모 없는 일은 없고 그가 이 땅으로 전하는 지식은 그가 또한 그의 지혜로 목적에 전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깨달은 지식이다.

아멘

하나님을 창조의 기원으로 믿는 믿음.

B.D. No. 2771

1943년 6월 12일

**나**는 만물의 기원이다. 너희가 이런 기원을 부인하기 원하면, 너희는 나를 창조하는 힘으로 깨닫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동인이 되어 원하는 것을 생성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로 나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피조물이 의지를 가진 권세의 영향 없이 스스로 생성된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너희에게 보이는 것들의 조성자와 유지자를 믿지 않고, 너희는 자연과 모든 창조물을 스스로 생겨난 작품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특정한 권세 아래 있고, 어떤 의지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여긴다.

이런 완전히 잘못된 견해는 너희가 자신의 권세와 힘을 통해 창조한 것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존재를 믿을 수 없게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창조의 기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창조주와의 관계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창조주를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창조주에게 더 가까이 다가 가기 위한 너희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사랑을 믿는 믿음이 없고, 이로써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유일하게 너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 나를 믿는 일은 나를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비록 너희가 창조의 세계에서 고립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신을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나의 피조물로 여기는 일이다. 나는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나에게 의해 생성되어 나온 모든 것은 소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원래의 성분은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형체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보이는 모든 것이 영화되기까지는 끝이 없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일시적인 것이다. 영적인 존재가 더 성장할 목적으로 새로운 형체를 살리기 위해 볼 수 있는 형체를 벗어나면, 볼 수 있는 형체는 실제 인간의 눈에는 일시적인 것이다. 너희가 나를 만물의 근원으로 인정한다면, 너희는 또한 나로부터 나온 모든 힘이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창조물이 사라지는 현상은 나를 창조주이자 유지자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로써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나와 연결을 끊으려고 시도한 피조물을 다시 얻는 과정이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또한 나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나를 믿고, 믿음으로 알게 된다. 그는 눈에 보이는 창조물이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창조물이 단지 성숙에 도달해야 할,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의 걸 형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한과 접촉하지 않는, 실제 창조물을 깨닫지만 창조물의 근원자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이성은 창조의 기원과 목표를 절대로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여기고, 영의 눈이 먼 상태이고, 그의 생각은 오류에 빠져있다. 그에

게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나를 믿는 믿음이 없다. 이런 믿음이 없는 그는 나와 연결을 이룰 수 없고 따라서 원초적 힘인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증거.

B.D. No. 3148

1944년 6월 4일

**창**조물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더 분명한 증거는 있을 수 없다. 왜냐면 인간이 매일 일어나는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창조물 안에서 역사하는 힘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힘을 상상할 수 있다. 그는 이 힘을 이런 역사를 통해 눈에 띄게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와 연결시켜야만 한다. 왜냐면 가장 깊은 지혜를 증거하는 작품의 존재가 의미가 없거나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제 이런 힘을 다스리는 의지를 통해 이제 일정한 법칙이 형체가 되게 했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지가 온 우주의 영원한 창조주로 인정해야만 하는 존재를 증거한다.

어떤 창조물도 계획이 없이는 생성되지 않았다. 왜냐면 아직 사람에게 사명이 숨겨져 있을 지라도, 창조하는 권세의 의지에서 생성된 모든 창조물은 사명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물을 더 세심하게 관찰할수록, 그는 더욱 창조물을 아주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권세 있는 장인의 작품으로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하고, 진지한 의지로 가장 작은 창조의 작품을 볼 때 떠오르는 생각에 자신을 맡기면, 유일하게 창조물만으로 가장 깊은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창조물을 통해 그에게 말하고, 사람이 자원하여 듣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인간이 자신이 볼 수 있는 창조물 중 어떤 것도 자신의 힘으로 생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힘이 먼저 역사해야만 하고, 이런 힘이 존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왜냐면 모든 창조물이 계획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힘이 한 의지에 의해 인도받기 때문이다. 이런 의지를 인정한다면, 사람이 이런 의지를 가진 존재를 어떻게 상상할지에 전혀 관계 없이 이런 의지를 가진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이 영원한 신성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럴지라도 생각하고 인도하는 존재로, 가장 깊은 지혜를 증거하는 그의 생각을 그의 의지를 통해 형체가 되게 한 존재로 인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혜와 전능함이 입증이 된다. 사랑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 사랑은 모든 창조물 안에 존재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이고, 한때 자신의 힘에 의해 생성된 존재를 향한, 즉 자신의 일부인 존재를 향한 사랑이다. 구하는 자로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안에 영적인 생명에 대해 전혀 모르고, 먼저 그의 눈이 보는 것을 원래의 창조의 힘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내적인 생명을 알려고 노력한다면, 그에게 내적인 생명이 숨겨져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비로소 충만한 지혜와 권세를 가진 창조주를 깨닫게 되면, 그는 또한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질문하기 때문이다. 그는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존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해주기 위해 새로운 창조물이 생성되도록 끊임없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은 이제 선명한 개념을 얻고, 그가 이제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창조주께 가장 겸손하게 복종한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사랑과 지혜와 전능함이 충만한 온전한 존재로 깨달은 분을 모든 생각으로 추구한다. 왜냐면 그가 이런 존재를 사랑해야 만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웃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은 매일 그에게 가장 단순한 수단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가 단지 창조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진지한 의지로 창조물이 자신에게 말하도록 허용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이미 그에게 말하고, 그는 생각을 통해 설명을 받아, 생명력이 있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이런 믿음은 그에게 굳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왜냐면 창조물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 지혜, 전능함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가 구하는 자로써 창조주 자신이 그에게 주는 응답을 구했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

B.D. No. 7067

1958년 3월 17일

**너**희 내면에 아직 어두운 곳이 밝게 되는 일이 내 뜻이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답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기 원하고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내 사랑과 지혜 가운데 나를 깨닫고 나 자신에게 그들의 사랑을 드리게 하기 위해 답변한다.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은 영적인 과정이었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 자신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빛의 존재가 단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합당하게 이 과정의 대강의 윤곽만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렇지라도 이 윤곽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를 밝게 해주는데 기여하는 깊은 이유와 끝 없이 많은 중간 과정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단지 진리를 가르침받기 원하는 너희를 혼란 된 생각 속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첫 번째 존재를 창조했을 때 단지 내 항상 발산되는 사랑의 힘을 받아야 하는 그릇을 창조하려는 생각을 했다. 왜냐면 내 제한 없는 사랑은 자신을 선물하고 항상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힘은 쉬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창조물들을 생성했고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에 합당한 다시 말해 내 형상인 어떤 존재를 생성하기 원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다. 내 곁에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생성되었다. 나 자신이 그로 인해 기뻐했고 그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나 자신의 형상이고 이제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그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내가 그 안에 부어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 힘의 원천이 형성하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존재는 자신 안에 자신에게 쉬지 않고 흘러가는 사랑의 힘의 흐름을 활용하고 자신이 존재들을 생성하려는 의지와 소원이 있었고 같은 과정이 이제 반복되었다. 왜냐면 내가 바로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가 자신과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에 참여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 자신의 형상으로써 존재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나로부터 항상 사랑과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 존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놔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은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창조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이제 창조된 존재도 나 자신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와 다를 수 없었다. 존재들은 최고로 온전하고 빛을 발산하는 아주 권세 있고 모두가 나 자신이 나로부터 생성되게 한 형상에 합당한 영들이었다. 비록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의 의지가 이런 내 능력을 사용했을지라도 그가 창조하는 일을 비로소 가능하게 해주었던 나로부터 흘러간 능력 때문에 나 자신이 그들의 창조자였다. 그러므

로 모든 존재들이 나와 내 첫 번째 형상으로부터 생성되었고 모든 존재들은 같은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원래 창조 된 존재 안에 내 의지가 역사했고 원래 창조 된 영들의 무리들은 나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왜냐하면 내 사랑의 불길이 그들의 원래의 성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순수한 사랑의 생성물이고 이로써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은 나에게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축복된 조화와 계속하여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끝 없이 긴 시간이 흘러갔다. 이런 상태가 바뀔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창조하는 과정이 단지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빛의 전달자인 존재가 나를 보려는 소원으로 인해 일어났다. 존재의 나를 향한 사랑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능력과 빛의 중심으로서 나에게 의해 창조 된 존재들이 나를 볼 수 없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나를 보기 원했다. 나 자신의 빛의 불씨로 창조 된 그가 내 빛이 충만함으로 인해 소멸되었을 것이므로 보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가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나로부터 독립되게 만들고 동시에 원래 창조 된 영들의 무리 앞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 보이려는 생각이 그를 스쳐 지나갔고 더 나은 깨달음에 반해 나를 보려는 갈망의 결과로써 그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모든 존재들은 온전함의 증거로써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항상 내 의지와 일치했다. 이 자유의지가 이런 생각의 혼돈을 허용했다. 그러므로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가 자신의 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 나에게 의해 금지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창조하는 일은 중단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의 의지가 더 이상 내 의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내 사랑의 흐름에 자신을 단았다. 그러나 항상 단지 잠시동안 단았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저항이 아주 적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었고 그가 전적으로 모두 나에게 다시 헌신했기 때문이다. 이는 능력의 흐름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줄어들지 않는 창조하는 일을 의미했다.

그러나 잘못 된 생각이 항상 또 다시 그 안에서 떠올랐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생각을 나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렸다면, 내가 이 생각에 반론을 제기했을 것이다. 그는 한 동안 나를 제외시켰고 자신의 능력이 연약하게 되었음을 눈치 채지 못했다. (1968년 3월 16일) 그가 잘못 된 생각을 통해 나와 연결을 느슨하게 하였을 때 사랑의 힘의 흐름도 줄었다. 그러나 그가 이미 내 능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생명으로 생성되게 한 셀 수 없이 많은 영들의 무리를 보면서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

내 능력이 비로소 그가 존재들을 창조할 수 있게 했다는 것과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이 비로소 그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항상 또 다시 강조해야만 했다. 이로써 그의 사랑이 줄어들므로 능력의 제공이 줄어든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은 나와 루시퍼와의 연결에 대한 증명이었다. 그러므로 루시퍼가 의식적으로 나를 떠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어떤 존재도 창조할 수 없었다.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은 나로부터 나온 사랑의 힘이기에 때문에 내 소유이다.

그렇지라도 모든 존재들의 큰 부분이 나를 떠났다. 이런 사실이 존재들의 원래의 성분이 서로 다른 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만하게 한다. 나는 나로부터 단지 하나의 자립적인 존재를 생성했고 이 존재는 내 형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존재에 의해 생명으로 생성된 영의 존재들은 다시 전적으로 나와 내 형상에 합당해야만 한다. 존재들은 똑같이 온전하고 최고로 빛을 발산하는 피조물이었다. 왜냐면 전적으로 같았던 우리 둘의 사랑과 의지로부터 첫 번째로 창조된 빛의 전달자보다 어떤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최고로 온전한 존재만이 단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도 비록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권세가 충만했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깨달았다. 왜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이다. 경외심 가운데 나를 섬길 자세가 되어 있고 항상 단지 내 뜻대로 역사하는 이로써 나 자신의 형상인 셀 수 없이 많은 영의 무리들이 최고로 축복된 가운데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였다. 이런 묘사할 수 없는 축복된 영의 무리들이 빛의 전달자의 나를 향한 사랑을 항상 더욱 증가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 안에서 여러가지 느낌들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는 영광스러운 빛나는 존재들을 보고 이제 나 자신을 보기 원했다. 그는 존재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이 나보다 월등하다고 믿었고 자신이 나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알았을지라도 나를 더 이상 모든 존재들을 생성한 분으로 인정하기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흘러가는 능력을 의식하는 가운데 힘의 원천을 떠났다. 이런 일은 영원한 기간을 통해 일어났다. 왜냐면 항상 또 다시 축복을 향한 갈망이 그를 나에게 향하게 재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기 위한 능력을 항상 또 다시 받았다.

이처럼 이런 존재들도 그들의 원래의 성분은 같았다. 다시 말해 나로부터 발산된 사랑의 힘이었다. 그러나 한동안 나를 떠난 일이 창조된 존재의 의지와 사랑이 나보다 그들을 생산한 자에게 더 향하면서 창조하는 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나는 이런 존재들과 빛의 전달자를 다르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정도로 빛이 충만했고 마찬가지로 나를 자신들의 창조주로 깨달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큰 결정을 요구하였을 때 그들의 의지가 자유한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1958년 3월 17일)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는 내가 모든 존재들과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된 것처럼 자신에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이 존재해야 하면, 내 사랑의 힘이 그들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이제 그에 의해 창조되는 존재들이 이미 나를 떠난 의지를 가졌을 때 그들과 연결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영의 존재들도 내 대적자에 의해 나를 떠나라는 자극을 받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내 대적자의 유혹에 넘어갔고 루시퍼는 이들을 깊은 곳으로 끌어 드렸다. 그들의 깨달음이 진실로 내 대적자의 비열한 계획을 혐오했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더욱 더 컸고 나에게 돌아오는 길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내 대적자를 추종하는 영들이 나를 떠났을지라도 초기에 창조된 영들의 더 많은수가 나에게 머물렀다.

루시퍼가 나를 대적하기 시작한 숨겨진 저항은 셀 수 없이 많은 창조된 영들이 의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나를 위한 또는 나를 대적하는 결정해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저항이 지금까지 굳은 연합을 방해했고 한때 내 형상이었던 존재들을 같은 의지와 같은 사랑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고 분리가 일어났다. 이제 비록 내 능력이 그들을 창조하는데 참여했지만 그들을 생산한 자와 같은 성정을 가지게 된 우리의 사랑으로 생성된 존재들이 이런 분리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먼저 생성된 빛의 존재에게 이런 저항이 아직 없었고 빛의 전달자의 사랑과 의지가 전적으로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부터 단지 우리와 전적으로 동일한 존재들이 생성되었다. 존재들은 빛나는 충만한 빛과 제한이 없는 능력을 가진 나 자신과 동일한 내 사랑으로 나로부터 생성된 형상이었고 적은 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나에게 머물렀다.

적은 수의 존재들에게 루시퍼 안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존재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게 했고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했고 필요에 의해 나를 볼 수 없게 만든 것으로부터 잘못 된 결론을 내려 볼 수 있는 존재를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했다. 볼 수 있는 존재는 이제 자신을 높여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자기에게 끌어 드렸다. 그러므로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의지적으로 나를 떠났고 이로써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모든 존재들이 한때 빛과 힘을 발산했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이 없이는 어떤 것도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빛의 발산은 먼저 나를 향한 루시퍼의 사랑이 줄어들어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이 존재에게 깨달음의 빛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면 창조하는 순간에 내 사랑의 힘이 다시 모든 존재들을 생성한 자에게 충만하게 흘러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의지적으로 나에게 저항해 이제 그 자신이 나처럼 마찬가지로 능력이 충만하다고 믿고 능력의 흐름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을 받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이런 창조하는 순간은 항상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한때 내 형상이었던 그의 영의 상태는 어두워졌고 내 상극이 되었다. 그의 성품은 전적으로 나와 반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세와 강함으로 착각했던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고 내 사랑으로 생성된 최고의 존재가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왜냐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특징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그의 의지를 나에게 향할지 또는 그에게 향할지 택할 자유가 있었다. 모든 존재는 의지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왜냐면 모든 존재는 빛의 깨달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생산자의 재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내 사랑을 잃지 않았다. 왜냐면 내 사랑이 존재들을 생성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존재들을 영원히 소멸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저항을 줄이기 전에는 내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이로써 불행할 것이다.

그러나 존재의 저항도 줄어들 것이다. 존재는 언젠가 다시 내 사랑을 구할 것이고 의식적으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 존재는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것이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에게 그들이 보기를 갈망했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아멘

창조물이 생성 된 원인.

B.D. No. 7158

1958년 7월 3일

영들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종류의 창조물을 가진 모든 우주  
의 창조물들이 생성 된 원인이었다. 이런 창조물이 생성되기 전에는 단지 영의 나라 만  
이 있었다. 이 나라는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된 세계였다. 이 나라에서 영적인 존재들은 자신의  
존재를 기쁘하고 능력과 빛을 소유 한 가운데 그들이 정함 받은 대로 창조할 수 있었다.

이런 창조는 영적인 창조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존재에게 흘러가는 생각과 아이  
디어를 실제화 하는 일이었다. 이 일을 위해 그들에게 능력이 제공되고 그들이 그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지 측량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실행할 수 있었다.

이런 영적인 존재의 축복된 상태가 절대로 바뀔 필요가 없었다. 그들 내면에서 그들의 창조  
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이로써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사랑의 빛의 비추임을 충만하게 받는 동안에는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제한이나 빛이 줄어드  
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존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는 상태가 되었다.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이고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에 의해 그들이 영원한 신성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루시퍼가 자신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생성되게 했다고 주장하  
며 그들에게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받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 존재들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창조한 분에게 향했다. 그러나  
루시퍼의 설명이 그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 설명이 그들에게 더 믿을 만하게 보였다. 왜냐  
면 루시퍼는 빛과 광채를 발산했고 그들이 루시퍼 위에 있는 존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 아직 깨달음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써 그들은 루시퍼의 설명을 의심으로 대  
항했다. 이제 빛이 충만한 순간이 작은 흐릿한 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존재가 흐릿한 상  
태에 빠질수록 어두워진 생각의 상태가 더 지속되었다. 그러나 또는 존재가 생각을 선명하게  
하고 빛이 충만하게 자신의 진정한 출처를 깨달았다. 루시퍼는 이런 존재들의 깨달음을 더 이  
상 흐릿하게 만들 수 없었다.

그러나 어두워진 상태가 더 지속 된 존재들은 루시퍼의 권세 아래 들어 갔다. 그들은 루시퍼  
에게 속하고 루시퍼를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겼다. 왜냐면 그들이 최종적으로 깊은 곳  
으로 떨어지게 전에 항상 또 다시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빛이 충만한 순간을 거부했기 때문이  
다. 원래 초기의 줄어들지 않은 루시퍼의 능력이 셀 수 없이 많은 가장 축복된 영의 존재들을  
창조했다.

이런 자신의 모든 창조물들로 인해 그 안에 잘못 된 자기 의식이 자라게 되었다. 그는 자신  
이 능력을 얻은 원천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준 능력의 증거

만을 보았다. 비록 그가 이 능력이 자신이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한 분에게 속하였음을 알았을 지라도 능력을 단지 자신을 위해 소유하기 원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소유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그들의 출처를 계시해주는 이 존재들 안의 빛을 흐리게 했다. 이로써 루시퍼는 그들이 최종적으로 자기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결정하고 이로써 빛의 전달자로서 존재들이 그들의 능력과 빛을 잃고 어두움에 빠지게 되기까지 자신들의 축복이 줄어들게 하고 자신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게 하는 갈등에 빠지게 하는 일에 성공했다.

너희 사람들에게 단지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과정이 영적인 종류와 물질적인 종류의 끝없는 창조물들이 생성 된 원인이었다. (1958년 7월 3일) 이런 창조물들은 단지 형태를 변화시킨,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런 타락을 통해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끝 없이 멀리 떨어진 일을 통해 존재의 성분이 더욱 타락할 수록 항상 더 굳어지게 되었다.

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항상 활발하게 일하게 하는 영의 능력이 영적인 존재들 자신이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존재들에게 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로써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머물게 되었고 생명이 굳어졌다. 남아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굳어진 성분이었다. 비록 이 성분이 원래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발산 된 능력이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효과를 잃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원래 영적인 존재들에게 다른 사용 목적을 부여했다. 즉 쉬지 않고 그러나 동시의 하나님의 의지가 존재의 의지가 되어 하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하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는 그들이 정함 받은 일과 반대로 행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용하기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 자신이 타락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다시 전적으로 굳어진 자신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된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입자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영적인 존재들에게 개입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입자들을 분리해 이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창조의 작품들이 생성되게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동시에 한때 자신으로부터 발산 된 능력을 변형시킨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각각의 창조의 작품에게 목적을 부여하고 이제 의무의 상태에서 성취하게 하여 분해 된 영적인 입자들이 이제 일하게 강요받게 했다. 그러나 영의 존재로서 전에 소유했던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하게 강요받게 했다. 그러므로 창조물은 원래 초기에 하나님이 존재로 생성되게 했고 단지 온전함의 측면에서 그의 온전함이 전적으로 바뀐 상태이다. 왜냐면 모든 창조물은 단지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영적인 존재는 물질적인 창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단지 그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발산한다.

그러나 이는 다시 단지 그들의 의지와 생각과 그들의 제한이 없는 능력에서 나온 영적인 작품들이다. 이 세계는 단지 온전한 존재만이 거할 수 있는 세계이다. 그곳에는 어떠한 부족함이나 어떠한 제한이나 어떠한 무능력도 없다. 이런 부족함과 제한과 무능력은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걸형체 안에서 일하게 강요받는 걸형체가 필요할 때 나타났고 우주가 하나

님을 떠난 존재들을 담을 때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체가 있는 곳에는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그 안에 묶임을 받고 있다. 형체가 굳을수록 그 안에서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더욱 강박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

그러나 형제 자체인 물질도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영적인 존재를 담고 있으면서 영적인 존재를 담는 그릇으로 그가 성장하게 돕기 위한 목적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모든 이런 영적인 입자들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영적인 입자들이 저항을 강제로 꺾게 강요하며 영적인 입자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실제 창조의 작품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특정한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은 이런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게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원래의 존재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의 작품을 모든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도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저항을 아직 포기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저항을 포기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어두움의 주인에게 다시 향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단계 하에 항상 행하는 일이 대부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항을 줄어줄게 한다. 왜냐면 존재가 이미 자신이 수행하는 가장 작은 일을 통해 능력을 표현하는 일이 그의 원래의 속성에 속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의 세계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창조물들은 영의 나라에서 한 때 이뤄진 타락의 결과이다.

별들의 세계는 영원에 걸쳐서 존재할 것이다. 타락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귀환하는 길을 열어주게 위해 새로운 창조물들이 항상 생성될 것이다. 귀환의 역사가 완성이 되기까지 마지막 강박한 영적인 존재들이 분해되고 귀환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까지 영원에 영원한 기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모든 이런 창조물들이 영화되는 일이 끝날 것이다.

언젠가 다시 단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일하며 비교할 수 없게 축복된 영의 세계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젠가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자녀들을 자신의 주변에 갖게 되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그의 끝없는 사랑이 그를 계속하여 행복하게 만들려고 재촉하고 그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자신을 쉬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의 창조. 모세. 비유로 말하는 일.

B.D. No. 4097

1947년 8월 5일

**너**희의 영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동안에는 어떤 판단을 하는 일에 몰두하지 말라. 너희의 이성이 어떤 지식을 처리해야 한다면, 너희 이성에 부담이 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따라서 진리에 완전히 일치하는 지식이 끝이 없이 많다. 인간은 인간의 부족함으로 그런 지식의 일부도 파악할 수 없고, 가장 예리한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도 빛을 받을 수 없고, 그는 단지 영적인 길을 통해 그에 대한 설명을 받기를 갈망해야만 한다. 그는 그의 내면에 깨달음을 얻기 위한 깊은 기도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또는 그에게 생각의 형태로 말씀하게 해야만 한다.

한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깊은 밤보다 어두운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이 순수한 진리로 깨닫고 영접한 것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논쟁을 요구하면, 논쟁을 통해 그에게 모든 설명을 해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웃 사람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형태로 진리를 전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한 조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거나 또는 알아 할 사항을 받아 적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다: 세상 창조에 관한 성경 본문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고, 영원한 진리인 분 자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설명은 진리가 될 수 있다.

사람에게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성숙한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조의 날을 바라볼 수 있고, 그는 순수한 영적인 연관 관계를 깨닫기를 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을 모든 물질 창조의 중심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모세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해석하거나 또는 다른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 깨달음의 정도가 증가할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깨어나게 하고, 자신의 영을 통해 인간에게 광범위한 지식을 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무진장하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하게 되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창조는 단지 비유를 통해 사람들을 선명하게 해줄 수 있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상응의 언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창조를 세성적인 발전으로, 즉 이 땅의 물질적 발전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영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은 피상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말한 것이다. 즉 끝없이 긴 기간이 걸리는 전체 구원 시대의 전체 인류를 위해 말한 것이다.

(1947년 8월 5일) 모세의 말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적용될 수 있게 서술되었다. 모세와 같은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선명하고 명확하게 예견하는 것처럼, 모세의 말은 구원의 시대의



시작과 끝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는 그에 따라 행한다.

그러므로 모세는 인류에게 빛을 주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전적으로 하나가 된 가운데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그가 표현하도록 촉구 받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제 이 땅이 창조된 순서를 알리기 원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일은 창조를 위해 끝없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고, 이러 시간이 영적인 성장과 또한 이 땅의 성장과 연관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영적 성장은 항상 존재가 최종적으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에 관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으로 성장하는 일은 이 땅의 창조의 느린 성장과 비교해야만 하고,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은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이 땅의 물질 세계의 성장과 같아야만 한다.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단지 이런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영적 의미대로 모세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러나 영적 성장과 물질적 성장 사이의 유사성을 구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할 수 없다. 물질적 창조의 과정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일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 이를 아는 지식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창조 과정의 시작은 존재의 영적 상태와 일치했다.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전의 것으로 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알려준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모세를 통해 같은 일이 일어났다. 즉 사람들이 영적인 목표를 바라보며 항상 이 땅의 창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예수님 안의 영에 의해 기록된 모세의 말씀을 설명했다, 예수님께는 인간의 영적 성장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로써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제 세상의 창조를 영적인 상응의 의미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게 했다. 영적인 상응은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이 보여주고, 인간이 자신의 혼을 위해 성공하기 원한다면,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유사성이다.

다른 많은 설명이 제공될 수 있고, 또한 영적 계시를 받는 사람이 영의 역사를 통해 서로 다른 해석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때때로 논쟁이 필요하다. 동일한 견해, 동일한 설명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확실하게 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설명은 다른 설명과 일치해야만 하고, 설명이 이해하기가 더 쉽거나 더 어려울지라도, 최종적으로 사람의 영이 위로 성장하는 일과 관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 자신이 역사할 수 있는 곳은 또한 이해하는 일이 보장이 된다.

아멘

영적 및 물질적 창조물.

B.D. No. 3495

1945년 7월 23일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무수한 세계가 존재하고, 그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영적인 존재의 성장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셀 수 없이 많은 세계들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살게 한다. 영적인 존재들은 성숙한 상태에 따라 부분적으로 물질에 묶여있고,

부분적으로 영에 묶여 이 세계들에 살고 있다. 이 세계들은 단지 물질적인 창조물이고, 그들의 과제는 영적인 존재가 살게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서로 다른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물질이 필요하지는 않고, 영적인 존재가 세상의 물질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 영적인 창조물 안에서 그들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는 그의 영적인 눈에 제공되는, 다양성과 종류와 사명들이 비교할 수 없는 창조물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성취시켜야만 한다. 이런 모든 창조물을 통해 영적인 존재는 자신을 시험해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빛이 충분한 정도에 따라 자신의 사랑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영적 창조물은 존재가 어느 정도 성숙할 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 그 전에는 세계에 있다. 이 땅을 미숙하게 남겨두면, 그일은 존재 주위가 완전히 어둡기 때문에 어떤 창조물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창조물의 기적은 성숙 상태와 함께 증가하여 존재가 새로운 창조물을 반복해서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영적인 창조물은 훨씬 더 다양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항상 조성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끊임없이 자신의 피조물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가할 수 없는 지혜를 나타낸다. 영적인 창조물은 또한 파괴할 수 없지만 그 자체가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창조물은 다시 온전한 빛 존재의 힘의 발산이다. 이 힘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또는 낮은 성장정도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 성장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조성한다.

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는 물질적인 창조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하면 물질적인 창조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물질적인 창조물은 영적인 창조물로 대체가 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에게 마찬가지로 가장 밝은 빛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질수록, 존재를 둘러싼 걸형체가 더 단단하고, 거주지로 할당된 창조물은 더 물질적이다. 존재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로 이 땅을 떠나면, 영의 나라가 이제 그의 거처가 되었지만, 그는 아직 같은 물질적 창조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낀다.

(23. 7. 1945) 그의 영적인 눈 앞에 물질적인 창조물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창조물을 향한 욕망이 아직 너무 커, 혼이 스스로 생각을 통해 물질적인 것을 창조하고 자신이 이제 그 안에서 사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빛의 존재에 의해 생성된 영적인 창조물은 없고, 그러나 혼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신을 속이는 거품을 형성한 것이다. 실제 혼의 영의 눈으로는 이를 볼 수 없고, 단지 이 땅을 향한 기억이 그들의 감각에 앞서 떠오르게 한 것이다. 혼은 또한 이런 형상을 절대로 기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형상이 존재가 이런 형상을 활용하기 원하면, 항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혼이 곧 자신의 창조물의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이런 창조물의 목적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반면에 영적인 창조물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즉 영적인 창조물이 온전한 가운데 계속하여 성장할수록, 창조물이 존재의 영적인 눈 앞에 점점 더 온전하게 보인다. 존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창조물은 꿈에도 꺾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화 전능함을 증거하고, 또한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해준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영적인 세계

에 거하는 존재는 힘의 받음으로 자신을 높이 성장시켜, 이로써 볼 수 있게 된 빛의 존재를 추구하고, 빛의 존재가 발산하는 빛의 충만함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물질 세계는 대부분 빛이 없고, 빛의 존재의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러나 물질 세계의 주민들을 돌보는 일은 빛의 존재의 공허의 역사이고, 이 역사가 빛의 존재를 행복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빛의 존재가 쉬지 않고 공허를 베푸는 일을 하도록 자극해주기 때문이다. 영의 세계 자체가 빛을 발산한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의 거주자가 서로 다른 성장정도를 가진 빛의 수령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두운 영역의 거주자의 받으려는 의지에 따라 자신의 빛을 비춰준다. 어두운 영역에서 빛의 세계는 빛나는 별로 볼 수 있고, 빛나는 별은 특정한 궤도로 빛이 없는 별을 돌고 있다. 빛을 비춰주는 일은 단지 영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빛을 갈망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형성한 물질 세계의 거주자들이 단지 이 빛을 느낄 수 있다.

혼의 성숙을 통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영의 나라에서 비로소 빛의 발산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영을 온전하게 인도하고 온전한 영을 행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수많은 창조물들이 생성되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의 모든 창조 작품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빛의 영역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고, 항상 그의 사랑의 힘으로 충만한 존재가 비로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의 모든 크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느끼고, 그의 사랑에 의해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축복이기 때문이다.

아멘

창조란 무엇인가? 변형이 된 능력.

B.D. No. 7849

1961년 3월 12일

**세**상이 창조 되었을 때 영의 나라에서 이미 타락이 이루어 졌다. 왜냐하면 타락이 창조하게 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타락이 세상이 생성되게 만든 원인이다. 세상은 내가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했을 때 나로부터 흘러 나간 능력으로 만들어 졌다. 이 세상의 성분은 한때 창조되었고 나를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입자로 되어 있다.

이런 존재들을 창조하기 위해 나로부터 흘러간 능력은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존재들은 자신에게 정해진 바를 성취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능력에게 다른 정해진 일을 부여했다. 나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분해하여 이 능력으로 이제 다른 종류의 창조물이 생성되게 했다. 왜냐하면 능력은 영원한 법칙에 따라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제 생성된 세계는 생명이 없는 세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이 자신을 나타내고 이 능력은 쉬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 뜻에 따라 모든 창조의 작품들은 이제 창조물 안에 거하는 능력이 의무의 법칙에 따라 성취시켜야 하는 정해진 일을 받았다. 그러므로 존재들은 가장 서로 다른 종류의 창조의 작품들로 변형되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영적인 세계였다. 그러나 능력이 형체로 굳어 졌다. 내 뜻에 따라 볼 수 있는 창조물들이 생성되었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에게 존재가 한때 떠났던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창조물의 과정을 거친 한때 타락한 존재에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 창조물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창조물이 원래 근본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혼이 어느 정도 성장에 도달하면, 사람은 그가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거함을 알고 그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한때 내 사랑의 의지가 생성되게 한 영적인 능력이 변형 된 것임을 안다.

이런 깨달음을 소유한 것은 이미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인 사람이 그의 원래의 상태에 가까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다시 도달하기 위해 단지 몇 발자국만 옮기면 된다는 것을 증거한다. 창조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한다.

그의 질문이 진지하면, 그는 확실하게 설명을 받을 것이고 이미 그의 성장의 높은 단계에 있다는 증거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나로부터 흘러 나간 능력은 역사 해야만 한다. 능력은 일하지 않고 머물 수 없다. 나에게 의해 생명으로 생성된 존재들은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거부했다.

그들은 나에게 자신의 등을 돌리고 그들의 내면으로 흘러 들어 가는 사랑의 힘에 자신을 닫았다. 이로써 그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었고 그들의 입자가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들을 분해하여 그들을 다른 종류의 창조물이 되게 하여 이로써 능력이 다시 내 뜻에 따라 역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내 사랑과 내 지혜는 창조와 함께 한 계획을 목표로 했다. 이 계획은 한때 자유의지로 내 뜻에 따라 일하기를 거부한 일을 이제 의무의 법칙 아래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때 발산된 능력이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 능력이 내 뜻대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모든 창조의 의미와 목적이다.

이처럼 모든 창조의 작품은 자신에게 정해진 바가 있고 다시 다른 창조 작품의 생성과 유지를 돕는다. 너희에게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내 아주 큰 사랑과 지혜를 연상시켜야 한다. 왜냐면 너희는 모든 것을 타락한 원래의 영들이 한때 가졌던 아주 빛이 충만하고 권세가 있었던 상태에 다시 도달하게 돕기 위한 작품으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내 피조물에게 터준 그들이 그들의 출처로 다시 돌아 가게 해주는 길을 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자유의지로 버렸던 축복에 다시 도달하게 너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내 아주 큰 긍휼의 역사로 창조물을 봐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인간의 상태에서 마지막 완성을 위해 추구해야만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완성은 단지 자유의지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창조물의 과정을 거친 이 땅의 과정에 관해 알아야 하고 이제 모든 능력으로 이 땅에서 너희가 자유의지로 끊었던 나와 연합이 되길 구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는 최종적으로 너희를 한때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생성되게 한 나에게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창**조의 과정은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비록 내가 진실로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으면 창조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창조과정은 깊은 곳에서 서서히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끝 없이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조상들의 책에서 성경에서 이를 비유를 통해 창조의 과정을 묘사해 너희가 이해하게 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아직 깊은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바른 과정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지 창조는 내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 창조의 내 의지의 작품이었고 작품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려고 했다.

누구든지 깊이 알고자 하는 자는 깊은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단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없는 모든 창조물들을 생성시킨 한 권세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게 깊은 연관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기 전에 그는 내 사랑의 힘에서 흘러나온 자립적인 모든 존재들의 원래 초기를 알아야만 한다.

그는 이 존재들이 나로부터 타락해 나간 것을 이으로써 이 존재들이 지고 있는 원래의 큰 죄를 알아야만 한다. 그러할 때 비로소 그에게 창조의 생성과정과 창조물을 통한 귀환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다. 아직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문자에 집착을 한다. 그는 절대로 선명함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영이 깨어난 사람의 가르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물들은 끝 없이 긴 이전의 성장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는 항상 창조물 안에서 높은 곳에 도달해야 하는 영적인 존재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는 아주 깊이 타락하여 내 의지에 의해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기 위해 그들에게 성장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미미한 형체에서 시작해서 영광스러운 형체를 갖게 될 때까지 최고로 서로 다른 창조물들 안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도달하기 위해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창조물도 시작이 될 때는 단지 가장 성장하지 못한 영들의 집합체였다.

그들의 입자들은 서서히 형체로 압축이 되어 아직 굳은 물질이라고 불릴 수 없는 기본요소로 볼 수 가있는 형체가 없지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있는 원소가 되었다. 왜냐면 물질 안에 전적으로 가장 길들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지혜로 올바른 정도로 모든 것을 분산시켜서 모든 요소들을 내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사용하여 각각의 정해진 목적을 수행해야만 하는 형체로 했다.

그래서 서서히 볼 수 있는 창조물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 땅에 초목들이 나타나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물의 세계에서 성장 과정을 거친 더 많이 성장한 영적인 존재들을 이런 창조물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데 끝 없이 긴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자연법칙에 의해 주어진 비록 아주 적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을 지라도 첫 생명을 가진 존재인 창조물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아주 작은 생명체에서 모인 영적인 존재들이 뭉쳐서 모든 이전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신적인 창조물인 인간들에게 유용하게 되기 위해 점점 더 크고 힘이 썩 형체를 가진 동물의 세계까지 발전해 나가는데 다시 끝 없이 긴 시간이 흘렀다.

인간의 혼은 한 타락한 영에게 속한 그리고 분해가 되어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서서히 높은 곳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든 입자들을 모은 것이다. 모든 창조물들이 서서히 성장해나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창조의 역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에 의해 눈깜짝할 사이에 창조한 것이 아닌 것처럼 결과적으로 인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될 수가 없었다.

창조물들은 나 때문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 타락한 피조물들 때문에 창조된 것으로서 타락한 자들을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들은 나에게서 나온 생각이 나타난 것으로서 정해진 성장 정도에 도달한 영적인 존재들이 다시 성장의 길을 계속하여 가게 하기 위해 새로운 형체가 필요할 경우에 항상 만들어 지게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창조물들이 주기적으로 생성되게 되었다.

식물의 세계는 광물의 세계가 영적인 존재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을 때 좀더 가벼운 걸형체를 요구할 때 필요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작은 가장 작은 생명체들도 식물의 세계 이후에 생성되게 되었다. 나만이 언제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필요로 하게 되는지를 짐승으로부터 아담이전의 인류에까지 그 안에 육신을 입은 혼의 입자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알았다.

마찬가지로 나는 언제 영적인 존재가 모여서 혼으로써 마지막 형체로 육신을 입을 수 있게 될지를 알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창조물인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이 형체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했다. 마찬가지로 한 인간을 창조하기까지 너희의 시간개념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끝 없이 긴 시간이 흘렀다.

비록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인간이 자신의 마지막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모든 창조물들을 가진 이 땅이 준비되어 이 땅을 받게 되는 시점이 영원한 시간이 전이라고 할지라도 내 귀환시키는 역사는 영원히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 왜냐면 주기적으로 항상 또 다시 이 땅에 큰 변화와 변경이 이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게 된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게 된 기간을 산정해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희 인간들이 이에 해당하는 빛의 정도에 도달한 후에야 비로소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올바르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왜냐면 이전에는 너희는 너희의 이성의 생각을 벗어나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적용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동안에는 비유를 통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한다. 영이 깨어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깊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지혜들은 그에게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빛의 나라에 그가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별들. 서로 다른 광도. 별들의 목적.

B.D. No. 1919

1941년 5월 16일

**□** 한히 많은 별들이 받은 사명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설명은 단지 믿음 안에서 줄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진리로 받아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사람에게 증거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별들은 이 땅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계속 성장할 가능성을 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단지 영적인 존재들의 종류와 방식이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모두가 성숙하지 못한 존재를 더 높은 성숙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섬긴다. 이 과제가 항상 모든 행성의 상태와 형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모든 행성에 혼의 성숙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보이는 창조물이 필요한 존재들이 살고 있다. 이 땅의 밖의 별에 거하는 이런 존재들의 활동 방식을 인간이 이해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의 하는 일은 이 땅의 존재의 과제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 땅의 과제를 위해 물질이 필요한 반면에 다른 별들은 이 땅의 자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창조물이고, 별 안에 사는 존재들은 이 땅의 일과 같은 일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없는 동안에는 단지 어떤 비슷한 것을 상상하게 된다. 따라서 단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해 인류에게 깨달음을 주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의 눈길을 어디로 향하게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게 된다. 그러나 너희는 창조물 안에 숨겨진 영적인 존재는 보지 못한다.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출처로 돌아가 합류하기까지, 끝없이 많은 단계를 거친다.

(1941년 5월 16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일이 영적인 존재를 한 때 가졌던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기에 충분할 수 있다. 그러면 영의 학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영적인 존재는 빛의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들과 연합할 수 있고, 이로써 항상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혼들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부족한 상태로 이 땅을 떠나, 빛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혼들에게 이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을 줘야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은 무한히 크고, 진정으로 영의 교육하는 장소가 충분하게 있다.

각 장소는 현재 그 안에 머물고 있는 혼들의 성숙한 상태에 합당하다. 각 장소들은 빛의 강도면에서만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해 별들이 크거나 적게 빛을 발산한다. 왜냐하면 각 별의 광도는 그 별 안에 거하는 존재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고, 존재들의 성숙도는 빛의 발산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빛이 없는 별들이 있다. 왜냐면 완전히 무지한 존재가 그 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존재들은 또한 빛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그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에 스스로 자신을 닫는다. 그러나 지식이 빛이다. 빛이 없는 별의 인구밀도가 심하다. 왜냐하면 영적 지식을 영접하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이 땅을 떠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아직 가장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별들에 할당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두움을 대부분 괴로움으로 느낀다. 그러면 그들이 빛을 원하고 찾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모든 존재가 더 높은 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 그들은 다소 더 밝은 빛의 영역으로, 다시 말해 낮은 빛의 광도를 가진 별들로 옮겨 질 수 있다.

그러나 존재들이 사랑을 행하는 모든 별에 같은 법칙이 적용이 된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일이 빛을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빛이 이제 지식의 형태로 사랑으로 일하는 존재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상상할 수 없는 빛의 광도를 가진 별이 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지속적으로 빛을 받고, 전해줄 수 있는 혼들이 있다. 이런 혼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방식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 자신을 높은 수준의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한 혼들이 이거나, 농친 이 땅의 과제를 다른 별에서 보완하려고 노력했고, 이제 빛의 전달자가 된 혼들이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보이는 창조물 안에 머물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들의 높은 성숙도로 인해 이제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고, 이제 이 일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행한다. 결과적으로 그런 별들은 아주 아름다운 창조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창조물들은 물질로 구성된, 굳은 형태로써, 이 땅의 창조물이 아니지만, 영의 영역에서 거하는 존재에게 합당하다. 마찬가지로 빛이 없는 별에도 어떤 물질적인 창조물이 없지만, 그러나 존재가 물질적 창조물을 인식할 수 있다. 왜냐면 그곳에 존재의 어두운 상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영들의 눈 앞에서 또한 이 땅의 창조물이 생성된다. 왜냐하면 영들의 의지와 욕망이 이런 창조물이 물질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고도, 이런 창조물을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존재가 무언가를 향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절대로 붙잡거나, 느낄 수 없고, 단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은 그에게 고통을 의미한다. 이로써 세상 것의 허무함이 그에게 분명 해서, 그들은 스스로 그에 대한 욕망을 스스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왜냐하면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존재는 절대로 빛이 가득한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전하게 된 상태에서 어떤 것을 만들고 형성하는 일은 다르다. 이런 창조물은 세상에서 갈망할 만한 것들과 관련이 없는 영적인 창조물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별들은 이 땅으로부터 분리된, 서로 다른 성숙도를 가진 혼들을 위한 것이다. 매우 다른 광도를 수백, 수천만 개의 별이 있다. 이로써 모든 혼이 계속 성장할 수 있기 위해, 진실로 자신의 성숙도에 합당한 머무를 곳을 찾는다. 그러나 높은 곳까지의 과정을 짧은 시간이 걸릴지, 또는 더 긴 시간이 걸릴 지는 단지 존재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도 타락하지 않게 하고, 그에게 또한 이 땅의 밖에서, 즉 저세상에서 성장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온전하게 보상할 수 없다. 왜냐면 단지 이 땅에서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가 하늘의 아버지의 최고의 상속을 받게 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게 하는, 온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별에서 이뤄지는 더 높은 성장 과정을 통해 존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정도는 무한히 많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행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은 그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로써 힘과 은혜가 측량할 수 없게 제공이 되는 동안에, 최고점인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이 땅의 삶을 주었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너희는 이런 의미를 모른 채, 이 땅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가 완전한 자유의지로, 언젠가 영원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피조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멘

창조의 작품인 이 땅의 생성.

B.D. No. 7942

1961년 7월 15일

**영**적인 존재들의 이 땅의 과정은 영원에 영원한 기간의 과정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 스스로 이 땅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의 구성 요소인 물질이 되었기 때문이다. 굳어진 영적인 입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이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우주 가운데 있는 창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 땅의 창조의 작품은 물질이다.

한때 하나님에 의해 생성되어 나온 영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로써 발산되어 나온 존재가 스스로 자신 내면을 반대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가서는 굳어진 영적인 입자가 되어 이제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변형이 되었다. 이렇게 되기 위해 끝없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왜냐면 이런 변화도 질서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성장 단계에 있는 볼 수 있는 것들이 생성되게 되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갑작스럽게 만드려낸 작품이 아니다. 왜냐면 서서히 성장하는 것도 그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또 다시 분해 된 영적인 입자들이 모여서 새롭게 형체가 되었다.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예정한대로 항상 성숙해지는 영적인 존재들이 거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지기까지 이런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이 긴 기간의 과정이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인간으로써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갈 수 있는 성장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 끝 없이 긴 시간이 필요 했다.

인간으로써 마지막 이 땅의 과정은 영원히 길었던 이 땅의 이 전의 성장 과정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와 같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형체를 창조하는 일은 눈 깜짝할 사이의 역사이다. 왜냐면 그의 의지와 그의 능력이 모든 그의 생각을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존재하는 작품으로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물질적인 변형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을 정한다. 왜냐면 하나님은 이런 저항하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들에게 어떠한 형체를 입히기 위해 이 형체 안에서 아주 미미 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위해 이 형체가 서서히 분해가 되어 변화될 수 있기까지 다시 영원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을 위해 그의 사랑의 힘이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의 저항을 줄일 때까지 가두어 둔다.

이 땅이 생성되어 생명체들이 존재하기까지 끝 없이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런 생명체들이 다시 끝 없이 긴 시간 후에 이 땅이 사람들의 마지막 양육을 위해 섬기는 합당한 장소가 되게 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의 모든 입자들이 창조물의 과정을 거쳤다.

가장 높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타락은 끝이 없어서 바로 어떠한 이런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존재에게 자신의 의식하게 해주어서 마지막 완성을 위해 높은 곳을 향한 마지막 과정을 가능하게 해줄 정도로 성장하는데 끝 없이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창조물은 이전에 이루어졌다. 창조물은 이제 모든 셀 수 없이 많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고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에게 귀환하는 데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로써 창조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일을 아직 예견해 볼 수 없다. 창조물들은 존재한다. 이제 모든 것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그의 길을 간다. 창조물은 항상 계속하여 형체를 바꾸면서 항상 또 다시 높은 곳을 향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러므로 모든 물질적인 창조물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입자에 의해 생명이 유지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창조의 작품은 새롭게 되고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섬긴다. 그러나 창조의 작품은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섬긴다. 왜냐하면 창조의 작품들이 이 땅의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자유의지를 빼앗긴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어떠한 형태 안에서 섬기고 이를 통해 서서히 성장해 나간다.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가는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다시 자유의지를 소유하게 되고 이로써 위로 성장하는 대신에 정지 상태에 있거나 또는 다시 퇴보할 수 있다. 그의 마지막 성장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실패는 사람 안의 영적인 존재인 혼이 또는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이 다시 자신의 영적인 입자가 이 전과 마찬가지로 굳어지고 이로써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로 혼이 다시 한번 분해가 되어 다시 이 땅의 물질의 창조물의 과정을 가는 일이 요구 된다.

이제 이런 필요하게 된 과정은 다시 분해가 되어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변화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한다. 이는 이 땅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런 강력한 변화에 역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근거하여 항상 한때 타락했던 영적인 존재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의 창조의 작품에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야만 한다.

너희가 만일 더 이상 너희의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해 마지막 완성을 위해 활용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편에서 언제든지 이런 역사를 함을 예상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 안의 혼이 성장하게 해주는 일이 혼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창조 되어 나온, 그러나 자유의지로 그로부터 타락했던 혼이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 일이 바로 모든 창조의 작품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돌아오는 길을 만드셨다.



창조물. 축소판.

B.D. No. 1810

1941년 2월 14일

**사**랑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작품은 이 작품이 생성되는 일 기운에 가장 지혜로운 창조물의 영을 알게 해줘야만 한다. 사람이 가장 진정한 기적을 드러내는 창조물의 작품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때, 무한한 수의 창조물의 작품이 사람에게 이를 증명한다. 가장 작은 입자로 분해된 하나님의 창조물의 작품은 항상 동일한 창조물을 축소판으로 보여줄 것이다. 모든 각각의 창조물의 작품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세계이고, 동시에 우주에 포함된 모든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단지 육안으로는 이런 경이로운 축소판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몇개의 창조물의 작품은 사람에게 이를 알게 해주지만, 사람은 이를 개별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모든 창조 작품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작품의 축소판이고, 그 안에 다시 수십억 개의 그런 축소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인간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때, 그가 비로소 그런 축소판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의 놀라움은 끝이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게 그런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영원한 신성의 위대함을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주는 무한 하다. 다시 말해 경계가 없고, 시작도 끝도 없다. 그 안에 있는 창조물도 무한하고 제한이 없다.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형체를 입고, 상상할 수 없는 작품을 형성했다. 다른 한편으로 가장 작은 창조물도 지혜로운 창조주에 의해 마찬가지로 신중한 돌봄을 받는다. 이런 창조물의 작품은 다시 무수한 창조물을 둘러싸고 있고, 큰 창조물의 작품보다 아주 적게라도 열등하지 않고, 그들의 섬세함으로 인해 훨씬 더 마법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게 보인다.

모든 창조물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들의 작은 속성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수천 배로 소형화되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체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것이 동일한 규칙 아래 있고, 모든 것이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신중하게 고려되었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인도를 받고, 안내를 받는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같이 가장 작은 모래 알갱이 안에 임재한다. 어떤 가장 작은 것도 그를 피할 수 없고, 그의 주의를 끌기에 너무 가치가 없거나, 너무 작은 것은 없다. 가장 작은 것조차도 모든 것이 형태가 된 하나님의 생각이고, 일단 발산이 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힘에 붙잡히고, 영원에 영원까지 존재하게 된다.

아멘

이 땅의 창조물들을 거쳐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까지 전체의 과정을 성장 과정으로 여긴다면,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되는 일에 끝없이 긴 시간이 걸린다. 굳은 물질은 아주 오랫동안 영적인 존재를 포로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식물과 동물의 세계의 더 유연한 걸형체는 영적인 존재를 훨씬 더 빠르게 자유롭게 한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다음 걸형체를 취할 수 있게 한다. 왜냐면 사람이 식물과 동물의 세계에서 끊임없는 성장과 쇠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것처럼 식물과 동물로 존재하는 일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가 식물과 동물의 세계의 창조물 안으로 육신을 입게 되면, 인간으로 마지막 육신을 입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굳은 물질은 해체되지 않은 가운데 자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왜냐면 전적으로 저항하는 영적인 존재가 굳은 물질 안에서 반발을 포기하도록 굳은 물질을 영적인 존재에게 거처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인 존재는 아직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묶인 상태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사슬을 깨려고 시도한다. 사슬을 깨는 일은 항상 단지 그런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올바른 때가 되었다고 여길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굳은 물질이 부서지고 이런 일은 영적인 존재에게 자유를 의미하고 동시에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는 과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굳은 물질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굳은 물질이 사용되면, 영적인 존재는 의무의 법칙 아래 섬기는 일을 시작한다. 이제 이런 걸형체가 분해될 때까지 다시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는 일이 가능하게 되면, 영적인 존재는 항상 더 자유롭게 된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은 항상 영적인 존재가 이미 섬기도록 언젠가 허용을 받는 일이다. 그러므로 활용되는 물건이 사용될 수 있고 어떤 목적을 섬기는 동안에는 그 안에 영적인 존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물건들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즉 물건이 파괴되는 일을 통해 계속해서 섬기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물질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다음의 더 가벼운 걸형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인 영적인 성숙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존재는 새롭게 생성되는 같은 걸형체 안으로 들어가 중단된 성장 과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를 위해 항상 그 안에서 상응하는 섬기는 일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존재를 구별해야 한다. 영적인 존재 자신이 아주 굳어져서 물질이 되었고 그가 저항을 포기하는 일이 이미 더 성숙하게 된 영적인 존재를 위해 걸형체로서 자신이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일로 나타나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이런 물질적인 걸형체 안에서 마찬가지로 섬기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걸형체가 영적인 존재에게 정해진 섬기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영적인 존재는 걸형체를 탈출하여 새로운 걸형체를 취하게 된다. 반면에 이전의 걸형체는 다른 섬기는 일을 마친 걸형체와 연결이 되어 그 안에서 이제 이미 더 성숙한 영적인 존재를 다시 섬길 준비가 된 합당한 걸형체가 되면, 이전의 걸형체는 빠르게 또는 늦게 같은 과제를 다시 받게 된다.

또는 이런 합당하지 못하게 된 곁형체가 분해가 된다. 그러면 그 안의 영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된 것이고 그는 이제 스스로 그 안에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형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곁형체에게 섬길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수록 물질 자신이 분해되는 과정이 더 많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의 성장단계가 이미 시작될 수 있고 원래 굳은 물질 안에서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이제 곁형체 안에서 이미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즉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물질의 해체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충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해체시켜서는 안 되고 해체시키는 동기가 다시 인류를 섬기거나 또는 아직 구속받지 못한 피조물을 섬기는 일이 돼야 한다. 영적인 존재는 단지 섬기는 일을 통해 자신의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다.

아멘

삶의 형편은 혼의 성장정도에 합당하다. 이전의 상태에 관한 지식.

B.D. No. 2330

1942년 5월 10일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은혜는 존재가 마지막 이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어진다. 다시 말해 존재가, 그의 의지가 이 길을 결단할 때이다. 존재가 전에 거친 모든 육신을 입는 과정을 통해 성숙한 정도에 도달하여, 마지막 단계인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성숙한 정도는 여러가지이므로, 마지막 단계의 삶의 형편도 여러가지이다. 여러 가지 입자가 모인 존재인 혼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마지막 이 땅의 삶을 혼에게 보여주고, 혼이 이 인생의 길을 가기 원할지, 원하지 않을 지 자유롭게 결정하게 한다.

혼이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을 결정하여, 이 상태에서 모든 반발심을 극복하고, 자신을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만들려고 한다. 혼은 자신이 견디어야 할 운명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혼은 육신을 입기 전에 외적인 삶의 형편만을 보고, 자신의 영적인 과정은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다스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자신을 강하게 느낀다.

항상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을 정도는 넘어섰지만, 혼이 이 전의 수많은 성장단계를 통해 도달할 수 있었던 성장정도에 맞게, 이제 크거나 또는 적은 고난과 궁핍이 있는 이 땅의 삶이 이제 혼에게 주어진다. 왜냐하면 혼이 마지막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혼이 빛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혼에게 제공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혼의 삶의 형편은 혼이 활발하게 사랑을 행할 수 있게 주어진다. 얼마나 혼의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지에, 혼의 성장정도가 달려 있다.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혼에게 사랑을 행할 기회가 주어진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영원 가운데 나타날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또한 돕고, 섬기기를 자원할 수 있다. 혼은 단지 이 땅에서 선이나 또는 악을 선택하면 된다. 혼이 선택하는 일을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또한 지극히 원시적인 형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형편은 이 전에 단계에서 도달한 혼의 성장정도에 따라 다르다.

존재가 이 전의 삶에서 보통을 넘을 정도로 충동적이었다면, 그는 이 땅에서 이 충동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하고, 혼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삶의 환경이 필요하다. 이 땅의 삶의 환경이 혼의 성장을 막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환경이 혼에게 전혀 불리한 것이 아니다. 모든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진 장애물들을 각각의 사람들이 극복해야만 한다. 어떤 혼에게는 더 큰 장애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외적인 삶의 환경이 혼에게 도움이 되도록 혼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혼이 육신을 입을 당시 모든 혼의 상태를 알고, 또한 혼의 의지가 강한 정도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혼들에게 성장 과정을 쉽게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혼이 모든 가능성을 활용하려고 애를 쓰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을 쉽게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혼을 성장시키려고 애쓸 경우 하나님은 그의 삶의 길을 짧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이 서로 섬길 수 있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줄 수 있도록, 서로 만나게 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아주 다양한 형태와 아주 다양한 크기라 할지라도 영적인 은사가 제공된다. 그러나 제공된 것이 그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보여주기에 충분하고, 이를 통해 그의 혼이 어떤 유익을 얻느냐는 유일하게 그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가 활동하여 그에게 생각으로 알려 준다. 영적인 선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다시 말해 생각을 통해 또는 사람들을 통해 그에게 전해진 것을 믿을지 또는 거절할지는 항상 그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성과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의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도움을 준다. 이 도움은 끝없이 긴 시간을 걸쳐 이전에 이미 그에게 주었다. 존재 자신이 육신을 입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의 자유의지가 간섭을 받지 않도록 모든 이전의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그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이 땅의 삶의 과정을 모르고 육신을 입는 혼은 없고, 혼은 모든 의지로 최종적으로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갈망 가운데 마지막 육신을 입는다.

아멘

모든 창조의 작품들을 유지하는 혼.

B.D. No. 2344

1942년 5월 24일

**혼**의 입자들은 그들의 구성이 아주 세심하여, 사람들이 혼을 본다면, 신비스럽고 우아하게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혼의 구성체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도 없고, 모든 창조물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끝없이 작은 형체로 혼 안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입자들이 각각의 창조의 작품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였고, 이로써 입자들이 체험한 모든 형체들을 가지고 있고, 즉 지속적인 연합으로 형체가 증가되고, 전체의 형상이 계속하여 바뀌고,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해하는 능력으로는 이런 모든 창조의 작품을 상상해보는 일이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언젠가 창조주의 지혜와 권세에 압도되어, 가장 기적적인 영광을 그에게 드러나게 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작고, 전혀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창조의 작품 안에 다시 몇 천가지의 축소된 형태의 창조물들이 담겨 있고, 다시 하나님의 큰 창조의 작품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이런 모든 창조물들을 유지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혼은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혼의 각각의 입자들은 창조물 안에서 그들의 과제를 이미 성취시켰고, 그러므로 마지막 가장 큰 과제를 위해 인간의 혼으로, 끝없이 긴 이 땅의 과정을 마치기 위해 연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큰 창조물들 가운데 인간의 혼처럼 넘치게 영광스럽게 구성된 기적의 작품은 없다.



혼이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관찰할 수 있고,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깨닫는다면, 이는 혼의 온전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빛나는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이 수천 가지의 형태와 구성으로 이뤄진 것을 바라본다면, 즉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혼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의 작품을 보는 일이 혼에게 어떠한 혼을 압도하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 혼이 자신을 관찰해보는 일이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형상이 항상 또 다시 새로운 형상을 갖고, 항상 또 다시 우아하게 느끼게 하는 새로운 창조의 작품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없고,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

피조물들은 지속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러므로 항상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일이 끝이 없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존재에게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이고, 존재의 영의 눈에 제공되는 것이 계속하여 변화되어야만 행복해지는 행복의 상태가 쉬지 않고 증가될 것이다.

아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일이다.

B.D. No. 2540

1942년 11월 6일

**창**조물의 최종적인 목적은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한때 자신에 의해 힘으로 생성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의 뜻 아래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시 자신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한다. 피조물 안에 거하는 존재의 의지가 아직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 존재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아래 순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닮는 일이 일어나고, 창조의 목적이 성취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는 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상태는 항상 빛과 능력이 충만한 상태이고, 행복하고 영원한 영광의 상태이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원래 존재들에게 주려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온전한 정도가 요구되고, 존재가 자신의 의지를 통해 도달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존재에게 온전하게 되는 자신의 성장을 이를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지원 없이 놔두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의 자신의 의지가 또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만 하고, 존재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존재에게 모든 자유의지가 주어지고, 존재는 어떤 최종목표가 그에게 갈망할 만하게 보이는 지를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시험 기간을 거쳐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에게도 자신에게 속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완전히 존재의 자유의지에 맡기고, 존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확보해주기 위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존재의 의지가 자신을 위해 결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에게서 생성된 어떤 존재도 잃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올바르고, 유일하게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수단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이런 수단을 볼 수 있게 나타나게 한다. 하나님이 한때 하나님 자신에게 반역함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영적인 존재의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이로써 존재가 이제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했다.

창조물의 과정을 여러 번 가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빛의 나라  
에 대한 깨달음.

B.D. No. 3345  
1944년 11월 25일

**영**적인 존재는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마지막 삶의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먼 길을 가야만 했다. 그는 많은 형체를 거쳐야만 했고,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해야만 했고, 자유를 빼앗겼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 땅의 과정을 가도록 강요를 받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유를 되찾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먼 길을 갔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이 존재가 최종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이 되어 한다. 영적인 존재가 의무 단계에서 행한 일인 섬기는 일을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가 사랑의 자극을 받아 스스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존재가 이제 사랑 안에서 섬기는 길을 갈 준비가 되었다면, 그는 짧은 시간 내에 마지막 형체를 극복할 수 있고, 그가 다시 자유롭고 행복 속에서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빛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목표이고 목적이다. 이런 목표가 이제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가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가 실패할 수 있다. 그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고, 목표에서 멀리 떨어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으로 충분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마침내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다시, 때로는 여러 번 가야만 한다.

모든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이 새롭게 성숙할 가능성들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존재가 높이 성장하는 과정을 갈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요구한다. 이 것이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다. 사람들의 영이 깨어남으로 영적인 존재의 원래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면, 그들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그의 위대함과 전능함과 그의 위대한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빛의 나라에서 그들의 눈 앞의 모든 베일이 사라지고 그들의 이 땅의 과정을 되돌아보게 되면, 그들이 영원한 창조주의 자신의 피조물을 향한 무한하게 충만한 사랑의 돌봄을 알고,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강박함과 영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안의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영적인 존재가 한때 대적자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은 또한 대적자에게도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성숙한 영적인 존재는 이 전의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과의 간격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 상태에 두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을 다시 얻기 위해 시도한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저항과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 알게 되고, 그는 이제 영적으로 깊은 곳에 자신을 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거의 죽을 것 같이 된다.

이 땅의 과정이 무한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될지라도, 이 과정이 영적인 존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줄지라도, 존재 자신은 자신의 창조주에게 자신이 이런 과정을 가게 한 것에 감사하고, 자신에게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왜냐면 이 축복이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저항 가운데 겪은 모든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모든 새로운 창조물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지식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아멘

세상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물질의 극복.

B.D. No. 5087

1951년 3월 18일

**세**상은 절대로 너희에게 성취시켜주지 못한다. 왜냐면 세상이 결국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재물을 너희에게서 빼앗기 때문이다. 세상은 너희의 육체만을 생각해주고 그러나 혼을 생각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육체는 사라지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 영적인 재물을 모으지 않으면, 혼은 가난하고 헐벗은 가운데 영원의 문 앞에 서게 된다. 세상이 겉보기에는 너희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권리를 빼앗는다. 너희는 실제 세상 한가운데 있고, 세상은 또한 너희가 머물 곳으로 주어졌고, 혼이 이 땅의 시험 기간을 통과하는 일에 동의해야만 했다.

사람이 이 땅의 세상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시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게 하고 항상 스스로 주인으로 머문다면, 즉 자신을 둘러싼 것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고, 항상 자신의 이 땅의 과제를 생각하는 가운데 세상의 물질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물질을 가진 동안에는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제 사용하고, 그가 이 땅의 물질을 실제대로 구원의 길을 가는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로 여기고, 또한 영적인 존재가 구원받도록 돕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에 감사한다면, 혼은 시험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그러면 물질이 절대로 사람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멸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갈망할 만한 것을 그가 찾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혼에게 진정한 부를 의미하는 재물을 줄 것이고, 육체가 죽은 후에도 이런 재물은 혼에게 머물게 될 것이다. 인간이 이런 깨달음을 가진 가운데 물질을 자신의 욕망의 성취로 간주하지 않고, 그에게 물질은 단지 이 땅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세상과 세상의 모든 자극과 유혹이 그에게는 가치를 잃고, 그는 그런 것들이 가짜 상품일 뿐이고 동시에 쇠하지 않는 상품을 잃을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단지 잃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의 실제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대적자의 나라로 깨달아야 하고, 성숙하지 못한 영들의 집합체로 깨달아야 한다. 세상은 이미 성숙하게 된 영적인 존재를 자신에게 끌어드리려고 한다. 너희는 세상을 혼이 올바른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보조 못하게 하는 역광이요 기만하는 빛으로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세상이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불멸하는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 땅의 세상이 너희에게 어떤 위험도 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너희 자신이 세상 물질에게 섬길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즉 유용한 창조물을 만들어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를 섬겨 이를 통해 영적인 존재가 높이 성장하게 하면서 이 땅의 물질이 위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사명을 부여하려고 시도하라. 이 가운데 무엇보다 너희

자신의 혼을 생각하라. 이로써 너희 혼이 세상 한 가운데서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영의 나라를 혼의 출발지로 깨닫고, 진지한 의지로 영의 나라를 추구하고, 이 땅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대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추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허용하는 기쁨. 창조의 기적.

B.D. No. 7108

1958년 5월 1일

**너**희에게 영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는 세상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의지와 반대로 영의 나라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로 먼저 세상을 버리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 주인과 연결된 모든 연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는 대적자가 너희를 다시 얻기 위한 노력을 포기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더 강하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소유하게 된 대적자가 너희에게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 영적인 재물을 더 이상 잃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이 너희를 자극하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아직 너희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너희는 아직 그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 나라를 소유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너희는 진지하게 너희가 얼마나 이 땅의 세상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봄으로써 너희 혼이 어떤 영적인 성공에 또는 성장 정도에 도달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세상이 아직 너희를 자극하면, 너희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 땅의 세상이 선물해주는 것보다 훨씬 갈망할 만한 재물을 선물해 줄 내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면, 세상을 향한 모든 소원을 죽이기 위해 너희 자신에게 많이 작업해야 한다. 그럴지라도 너희에게 아직 많은 세상의 즐거움이 허용된다. 너희는 이런 기쁨이 나를 대항하는 것일 까 봐 또는 나를 향한 적은 사랑을 의미할 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는 너희가 즐거운 가운데 이 땅의 길을 가기 원하고 너희가 내 창조의 작품을 기뻐하기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재물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기 원한다.

너희는 단지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지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제공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너희가 갈망하는 것의 영적인 존재가 어떤 성장 정도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너희는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나는 내 대적자의 말을 듣는 자들을 그로부터 빼앗기 위해 이 창조물 안에서 서서히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창조물들이 생성되게 했다. 그러므로 대적자에게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권세가 더 이상 없다. 너희가 이제 영적인 존재를 올바르게 사랑하면, 한때 타락한 존재들을 향한 내 아주 큰 사랑을 증명하는 모든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양한 자연의 창조물들을 기뻐해도 된다. 왜냐면 창조물들은 내 피조물들을 향한 내 사람을 볼 수 있게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이 가득한 하늘이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고 행복하게 해주는 빛을 발산하는 태양이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고 비가 주는 모든 쾌활하게 해주는 역사들이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런 기쁨도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깨끗한 공기와 생수가 언제든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명으로 창조

한 분의 사랑을 증명해주는 것과 같다. 이런 모든 즐거움은 너희 혼을 쾌활하게 하는데 감사하는 가운데 영원한 창조주를 생각하는데 이로써 너희의 관점과 생각을 너희 혼이 이 땅에 찾아야 하는 나에게 향하게 하는데 적합하다.

너희 혼을 고양시키는 것을 혼이 나에게 향하게 하는 것을 너희 사람들은 염려할 것 없이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유혹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 유혹은 너희 모든 생각이 빨려 들게 하고 너희를 항상 내 대적자와 굳게 연결시키고 너희가 아직 전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와 연결을 이루게 하고 동시에 너희가 이미 극복한 상태에 다시 빠지게 한다. 너희 육체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의 재물이고 육체는 자신의 욕망 가운데 혼을 억압하여 혼이 내 대적자의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나를 찾지 못하게 한다.

사람은 쉽게 스스로 자신의 육체가 또는 자신의 혼이 만족을 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그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육체의 행복을 만들거나 낮게 하려는 것임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는 어디서 언제 올바른 기쁨이 잘못 된 길로 갈 수 있고 혼에게 독약과 같은 저속한 기쁨에 빠질 수 있는지 알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항상 순수한 것을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연의 기쁨을 육체의 정욕과 연결시키고 사람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이 내 나라를 얻으려면, 육체에 강제를 행해야만 한다. 육체가 갈망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 왜냐면 욕망이 사라지면, 비로소 이 땅의 물질적인 재물이 혼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단지 이 재물을 올바른 정도로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비록 그가 아직 이 땅에서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에서 살지라도 자신을 비로소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를 더 이상 끌어내리지 못한다. 그는 물질을 다스린다. 그는 자신을 물질 세계에 속한 자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은 나라를 이미 소유한다.

아멘

일찌기 파괴하는 일과 그의 결과.

B.D. No. 2313

1942년 4월 25일

 든 물질 안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물질 안에서 존재하도록 정해져 있고, 영적인 존재가 마음대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없다. 단지 사람의 의지만이 물질로부터 영적인 존재를 해방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음대로 영적인 존재의 체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왜냐면 물질을 변형시키고, 항상 또 다시 영적인 존재가 거해야 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나 오랜동안 영적인 존재가 어떤 형체 안에 머물러도 되는지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인간이 물질의 변형을 위해 일하고, 새롭게 형체를 창조하는 목적이 섬기는 일이면, 이런 일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다.

인간의 의지가 물질을 이용해 생산하는 모든 것은 다시 인류의 유익을 위해 섬겨야만 한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의 걸형체가 존재하는 기간이 하나님의 뜻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걸형체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일찍 분해가 되고, 새롭게 생성되어야 하는 역사를 통해 섬기는 과제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고, 영적인 존재의 성장과정이 중단되거나,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의 어떤 피조물을 위해 최대도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인간의 손이 영적인 존재가 섬기는 일을 통해 성장하는 일을 막는다.

동시에 인간이 거만하게 창조물을 조기에 파괴시켜, 영적인 존재가 조기에 자유롭게 되도록 돕는다. 이런 일은 영적인 삶에 아주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다음 형체 안으로 육신을 입기 위해 필요한 성숙도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이런 일은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적인 존재가 이전의 형체를 완전하게 극복할 때까지 새로운 형체 안에서 살 수 없다. 결과적으로 다가 오는 때에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의 걸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자신의 때가 되어, 이제 새로운 형체 안에서 거하게 될 때까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

(1942년 4월 25일) 사람들의 사랑없음 때문에 일어나는 물질을 조기에 파괴시키는 일로 인해 성장 과정이 중단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자유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한다. 아직 파괴되지 않은 부분에 남아 있는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새로운 형체를 기다린다. 그러나 물질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곳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다른 머물 곳을 찾는다. 영적인 존재들은 그들의 소유하려는 욕구에 따라 먼저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항상 또 다시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욕망을 불러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그 안에서 다시 육신을 입을 수 있도록 같은 물질을 만들려는 의지를 갖도록 자극한다.

이런 일은 사람에게 자주 고통이 큰 상태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태는 자신들의 성장과정이 중단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원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런 파괴된 물질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힘을 사용한다면, 물질을 향한 인간의 모든 태도가 얼마나 결정적인 지에 따라, 영적인 존재가 그 근처에 얼마나 오래 동안 머물러, 사람을 공격할지에 따라, 영적인 존재의 공격이 중단이 된다. 물질을 향한 욕망이 클수록, 영적인 존재의 영향력이 커지고, 영적인 존재는 이런 영향력을 더 많이 인간의 욕망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인간의 활동을 통해 이런 영적인 존재를 다시 담는 것을 생성하는 일이 불가능한 곳에서 영적인 존재는 다른 창조물을 공격을 한다.

영적인 존재들은 다른 창조물들과 연결을 이루려고 하고, 다른 창조물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일은 정상적인 자연의 현상을 벗어나는 일로 나타난다. 즉 식물 세계에서 특히 분명하게 불규칙성이 나타난다.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개입을 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모든 파괴의 역사가, 고귀하지 못한 동기로 조기에 파괴하는 모든 파괴의 역사가 다시 파괴하는, 질서를 벗어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조기에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는 무력하지 않고, 자유한 상태에서, 같은 성장 정도에 있거나, 더 높은 수준의 성장 정도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 항상 공격을 하거나 영향을 미친다. 이런 존재는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존재와 합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를 활용한다. 다시 말해 두개의 지능이 이제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한다. 이는 항상 단지 시도이다. 왜냐하면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가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짧은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상태에 간섭을 받고, 심각하지는 않을지라도, 눈에 띄는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 영적인 존재들이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루려는 일을 추구하고, 찾는 일을 허용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에 의해 창조물이 중요한 변화를 겪는 일로부터 창조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단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모든 범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는 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일은 식물의 세계의 성장이 지연되거나, 흉년이 들거나, 날씨 영향으로 나타나고, 이런 일은 자연 가운데, 구름 속에서, 공기 중에서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가 일으키는 일이다. 창조물을 조기에 파괴하는, 이로써 식물의 세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의지가 아주 자주 그런 일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는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지 않고, 비록 존재가 자신의 성장 단계에 합당한 걸형체를 찾고, 자신의 성장과정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성숙 상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새로운 변형되는 일과 새로운 활동할 영역을 찾기 때문이다.

아멘



**물** 질이 변형되는 일에 자주 끝없이 긴 시간을 소요된다. 왜냐하면 물질이 분해가 될 때, 그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가 물질의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작은 부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즉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완고하게 저항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걸형체이다.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저항하는 일과 이런 저항을 포기하는 일에 대해 알고, 또한 영적인 존재에게 거할 곳을 정해주었고, 영적인 존재의 의지에 따라 영적인 존재가 구원을 받게 했다. 이런 일이 다시 이 땅의 표면과 이 땅의 식물이 다양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여러 창조물의 수명이 다양하고, 특정한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화산폭발과, 이 땅의 광물이 나오는 곳이 다양함과, 사람의 다양한 창의력과 능력을 설명해준다.

더 나아가 굳은 물질에서 유용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사람들의 의지가 또한 자극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런 물건이 필요로 해야만 하고, 이런 물건이 필요한 곳에서 살아야만 한다. 행하기 원하는 세력과 필요로 하는 세력 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섬기는 종류의 물건이, 즉 목적을 성취시키는 물건을 위해 물질이 필요하게 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 단지 영적인 존재의 걸형체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게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물의 가장 굳은 형체 안에서 또한 더 성숙하게 된 식물의 창조물 안에서 묶임을 받고 있다. 이런 굳은 형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머문다. 다시 말해 이런 굳은 형체 자체가 단지 최소한의 변화를 겪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섬기는 목적을 성취시키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이런 굳은 형체가 다른 창조물의 작품들과 그들의 성장을 위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물질 안에 가장 반항적인 영적인 존재가 머물고 있고, 영원으로부터 영적인 존재의 강박함을 아는 가운데 그런 영적인 존재의 걸형체로 이런 물질이 정해진 것이다. 영적인 존재의 실제 성장과정이 진행되지만, 그러나 느리게 진행이 된다. 인간의 손이 그런 물질의 변형에 적게 기여를 한다. 이런 물질은 대부분 자연의 권세를 통한, 폭풍과 열과 비와 화산폭발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단지 변형이 된다.

그러므로 이 땅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한다. 이 땅은 자신의 걸형체를 변형시켜야만 하고, 또한 이 땅 내부의 영적인 존재가 수시로 이 땅의 표면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한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의 표면에서 성장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돼야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머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은 물질이고, 물질의 최종 목표는 분해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분해되는 일에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굳은 물질 안에 묶임을 받은, 높이 성장할 수 있기 위해 언젠가 자유롭게 되어야 할 영적인 존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간격으로 분해되는 일이 항상 또 다시 반복해서 발생한다.

영적인 존재를 위한 이 땅의 과정은 이제 수많은 걸형체를 거치는 과정이다. 영적인 존재가 섬기는 일을 통해 이런 걸형체가 해체될 때까지 섬기면서 모든 걸형체를 극복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수천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땅의 성장과정은 끝이 난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떤 것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는 인간을 통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변형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변형 과정에 특정한 법칙이 지켜져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창조물이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되는 것처럼, 어떤 것을 불법적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파괴한다면,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가 사랑을 행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되고, 이런 영향이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 자신에게 미친다.

섬기려는 의지가 성장의 시작이다. 영적인 존재는 각각의 형체 안에서 자신의 이 땅의 과제를 자원하여 수행하면서, 섬기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증명해야만 한다. 영적인 존재가 비록 의무의 법칙을 따른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가 섬기기 위해 각각의 형체 안에 머무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그럴수록 이제 더 빠르게 걸형체를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의 성장과정은 가장 다양한 종류로 형체가 변화되는 끝이 없는 연결고리이고, 영적인 존재의 자원하는 의지가 각각의 형체 안에 머무는 기간을 정한다. 그러므로 창조물 전체가 변화가 돼야만 한다. 어떤 것도 그대로 머물 수 없고, 끊임없이 새로운 형체를 입어야만 한다. 모든 형체는 섬기는 목적을 성취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가 마지막 걸형체인 인간에 도달하기까지 성장할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모든 걸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자유로운 존재로 영적 영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자유의지로 마지막 이 땅의 삶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아멘

어떤 창조물도 무의미하거나 목적이 없는 것이 없다.

B.D. No. 8768

1964년 3월 2일

**비**록 너희 사람들이 물질적인 창조물의 목적을 깨달을 수 없을 지라도 무의미하고 목적 없는 물질적인 창조물은 하나도 없다. 모든 창조물은 영적인 존재가 성장해 나가도록 섬기기 위해 생성되었고, 이런 성장은 비록 묶임을 받은 의지를 가진 의무의 단계에서 일어날 지라도 섬기는 일이다. 이런 단계에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사람들의 섬기는 목적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생성되었고 능가할 수 없는 지혜로 창조물에게 기능이 부여했다. 한 동안은 이런 기능이 단지 자신의 저항을 꺾고 자유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

그러나 높이 성장해야 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저항하는 일을 통해 굳어진 영적인 존재가 된다. 영적인 존재가 성장하려면, 그는 자신의 저항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창조물은 끝없는 오랜 시간 동안 형태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지만 그럴지라도 목적을 달성하고 영적인 존재를 감싼다. 이런 영적인 존재는 이미 가장 깊고도 깊은 곳을 벗어나 창조물 안에서 자신의 높이 성장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아직 길을 가지 않고 아직 물질에 의해 감싸게 될 수 없는 끝없이 더욱 강하게 굳어진 영적인 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자들은 아직 물질이 될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감싸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존재가 언젠가 창조물을 거치는 길을 시작하기까지 그런 상태로 오랜 기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창조물 가운데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섬기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각각의 창조물이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통해 각각의 창조물이 섬기는 일

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너희 사람들이 너희의 의지를 통해 각각의 창조물이 섬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하게 한다. 많은 창조물의 구성과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일이 바로 이런 창조물에 의해 보장이 되고 창조물은 섬기는 목적을 성취시킨다. 그러므로 창조물이 단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창조물은 그들 자신의 존재를 보장한다. 왜냐면 한 창조물이 다른 창조물을 위해 창조되었고 이런 일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지혜로 고려되어 정해졌고 하나님은 의미와 목적 없는 어떤 것도 생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런 일은 그의 사랑과 지혜에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너희 자신이 아직 낮은 수준의 성숙한 정도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부여된 모든 목적을 깨닫는 일은 의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숙해지면 깨달음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창조물의 기적이 항상 더욱 너희를 감동시킬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희에게 분명하게 되고 창조물들이 무한하게 권세와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창조주를 너희에게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창조주가 목표를 정했고 또한 이런 목표에 확실하게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스스로 창조물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창조물이든지 창조물의 섬김을 활용해야 한다. 왜냐면 굳은 물질인 광물의 세계이든 식물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이든 창조물은 너희가 항상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물질의 곁형체를 분해시키는 모든 일은 형체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한 단계 성장하는 일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불의하게 때가 되지 않은 형체를 분해시켜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실제 올바른 때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졌고 너희는 어떤 것도 성급하게 너희를 섬기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신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조기에 자유롭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너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고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너희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무 물질에 집착하여 세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자연 법칙을 무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모든 일이 항상 질서의 법칙을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 창조물 안과 또한 인간 안에 묶임을 받은 언젠가 자유를 얻어야 할 모든 존재들이 위로 성장하는 일이 보장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않는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이 뒤쳐지고 폭력적인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모든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는 일을 막는 일이 일어나면, 이런 규제가 일어난다.

창조물 가운데 창조의 목적이 이뤄야만 하지 않는 창조물은 전혀 없고 모든 창조물은 이 땅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일을 섬긴다. 이 땅에 창조물이 생성되는 동안에는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최종적으로 귀하는 일을 목표로 하는 성장 과정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흘러갈 것이고 새로운 창조물들이 계속해서 생성될 것이다. 왜냐면 셀 수 없이 많은 원래의 영들이 아직 자신이 물질이 되기를 기다리고 물질을 거치는 과정을 기다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영원한 출처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합법적인 질서에 따라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런 영원한 질서의 법에 어긋나는 모든 일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언젠가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모든 것이 다시 영화될 것이고 언젠가 모든 창조물이 단지 존재들을 끝없이 축복되게 하는 영

적인 성격을 갖게 생성될 것이다. 왜냐면 존재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축복을 위해 끊임없이 창조하고 역사하기 때문이다.

아멘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지. 영적인 창조물과 물질적인 창조물.

B.D. No. 3943

1946년 12월 25일

**□** **T** 한을 다스리는 영은 끊임없이 활동한다. 왜냐면 영이 창조하고 조성하면 힘을 사용하는 일에 피곤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의 힘의 발산은 절대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새로운 영적인 창조물과 물질적인 창조물이 창조된다. 그는 아직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존재의 구원을 위해 그의 생각이 물질적인 형체가 되게 한다. 그는 또한 하늘의 모든 영광이 열려 있는 빛의 존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기적적인 영적인 창조물이 생성되게 한다.

그의 창조주의 영과 그의 창조하려는 의지는 능가할 수 없고, 절대로 끝이 없고, 항상 그의 아주 큰 사랑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 이런 사랑은 자신의 힘에서 나온 모든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비록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지날지라도 새로운 창조물을 생성하는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의 힘 자체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 힘이 역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 세상적인 존재를, 즉 물질을 살아 있게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지속적으로 힘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고, 힘을 받는 일을 통해 한때 그가 자유의지로 떠났던,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물질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 밖에 있는 영적인 존재의 구원을 돕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 자신의 힘을 증가시킨다. 모든 물질적인 창조물은 영적인 존재의 구속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영적인 창조물이 최종 목적이다. 즉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를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하는 일이 최종 목적이다.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면 그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물이 더 이상 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창조물 안의 영적인 존재가 더 이상 위로 성장하지 못할 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의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하나님은 또한 창조물이 사라지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창조한 것을 분해한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다른 형체 안에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창조물들을 분해하는 일은 단지 영원으로부터 그의 지혜가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필요하다고 깨달은 대로,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일어난다. 반면에 영적인 창조물은 불멸이고 단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인간의 이성이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심장이 꿈꿀 수 없는 항상 더욱 영광스러워지는 형상이 생성된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시대는 항상 과거의 창조물과는 다른 더욱 영광스러운 창조물을 보여준다. 이런 창조물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함과 지혜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힘은 무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은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의 규모는 혼이 영적인 창조물과 이 땅의 창조물을 볼 수 있는, 특정한 성숙한 정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혼은 비

로소 자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그의 사랑으로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항상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

B.D. No. 7268

1959년 1월 29일

**이** 땅에서 영원한 기간에 걸쳐서 새롭게 창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직 굳은 물질 안에서 다른 창조의 작품 안에서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지속될 것이다.

왜냐면 한때 타락한 원래의 영이 가장 깊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는 귀환을 위해 그 자신이 한때 반발하면서 하나님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그가 하나님을 위할 것인지 또는 다시 반발할 것인지 정하는 그의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그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과정을 갈 수 있는 단계 도달하기까지 영원한 시간이 이미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직 끝 없이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언젠가 귀환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까지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이 되기까지 그런 후 물질적인 창조물 안에서 서서히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가장 큰 불행 가운데 머문 기간은 영원한 기간이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은 이미 묶여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박해진 영적인 존재들을 자신의 뜻을 따라 형성하기 위해 영접했다는 증거이다. 존재들은 이미 존재가 자신의 성장 과정 초기에 있거나 또는 이미 성장을 했거나 전혀 상관 없이 존재에게 섬기는 사명을 주기 위해 존재를 둘러싼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해 붙잡힘 받은 것이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둘러싸인 강박해진 영적인 존재들이다. 영적인 존재들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런 걸형체를 받은 것이다. 이 목적을 깨닫는 일은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어떤 것도 목적과 목표가 없는 것이 없다. 단지 이 목적을 자주 단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안다. 왜냐면 사람의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원래의 영들을 다시 존재로써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이전에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땅이 유지되고 가장 서로 다른 창조물들을 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므로 언젠가 인간의 형체를 살아있게 할 수 있기 위해 모든 묶임을 받은 입자들이 성숙해져야만 하는 성숙함에 도달하면, 모두가 아직 모여야만 하고 찾아야만 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원래의 영들이 창조물 안에서 묶임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 안에 이 땅 표면에 이 땅에 창조물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런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하는 장소로 섬기는 이 땅이 존재하는 기간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땅의 종말을 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나 또는 이 땅이 전적으로 분해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땅은 종말을 맞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은 형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각각의 입자들이 이미 도달한 성장 정도에 알맞은 거할 장소를 그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항상 또 다시 새로운 창조물들이 있다. 언젠가 이 땅은 순수하게 영적인 창조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영원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면 영적인 창조물은 단지 완전히 성숙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을 수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이 땅의 창조물들은 항상 단지 얼마나 많은 구속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이런 창조물들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맘대로 성장 과정의 단계를 건너뛸 수 없다. 타락한 존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설립되었고 실행되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존재들은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도달해야만 한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영원한 기간이 요구 된다.

이 계획은 항상 또 다시 새로운 창조물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겉형체를 바꾸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겉형체를 바꾸는 일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위로 성장하는 것을 보장하는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항상 또 다시 필요하다. 자연 속에 계속하여 태어나고 죽는 일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과정이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일은 항상 또 다시 굳은 물질 분해하여 그 안에 영적인 존재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그들의 성장 과정이 이제 더 쉬운 겉형체 안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다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 붙잡아 가장 굳은 형태 안으로 묶기 위한 일이다.

이 땅은 아직 영원한 기간 동안 이 과제를 위해 섬겨야만 한다. 이 땅이 실제로 항상 또 다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 땅의 마지막 영적인 존재들이 육신을 입기까지 너희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너희가 "영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너희는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 앞에 두고 있는 것은 너희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59년 1월 29일) 왜냐면 어떤 것도 살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조성된 새 땅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기 위해 휴거받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람과 짐승은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아멘

새로운 성장과정. 영적인 존재의 파문.

B.D. No. 3255

1944년 9월 15일

**영**적 성장과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중단되고, 무한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던 존재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체되거나 퇴보한다. 존재가 다시 새롭게 묶임을 받게 됨으로 이런 계속되는 퇴보가 중단이 된다. 왜냐면 성장하는 일에서 퇴보하거나 또는 정체되는 일은 단지 자유의지의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는 비록 의무 단계일지라도 항상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존재의 의지에 맞게 성장이 이뤄진다. 자유의지를 묶는 일은 이제 다시 새롭게 곁형체가 요구된다. 이런 곁형체는 저항하는 의지의 강한 정도에 알맞아야 하고, 영적인 존재가 다시 성장과정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이제 그 안에서 다시 거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와 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곳에서 단지 성장이 있을 수 있고, 단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 질서를 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개입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마지막 육신을 입는 일을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지 전적으로 그의 자유에 맡겨 둔다. 그러나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할 위험이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도 또한 빛이 부족한 상태로 끌려 갈 위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자신의 뜻에 대항하는 영적인 존재의 자유 의지를 빼앗으면서 이런 일의 종단을 명할 것이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저항하는 의지를 바꿀 모든 기회를 그에게 준다. 그가 의지를 바꾸는 일은 비록 영원에 영원한 기간이 걸릴지라도 언젠가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면 모든 결정은 자유의지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자유의지는 항상 영적인 존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는 성숙한 단계를 선행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의지를 항상 또 다시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한 존재에게는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항상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야만 한다. 이로써 존재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저항을 포기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 그러므로 구원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항상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존재가 아주 강하게 분노하는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왜냐면 그가 곧 자신의 권세를 빼앗길 것을 느끼고, 빛의 총명한 존재도 자신의 권세 아래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로써 하나님의 권세를 줄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빛에 대항하는 이런 싸움은 종말 직전에 단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빛이 총명한 존재를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왜냐면 인류가 자원하여 지원하는 대적자의 권세가 엄청나게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항상 종말을 의미한다. 왜냐면 빛과의 싸움이 숨기지 않고 일어나고, 빛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두움을 향하도록 강요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대적자에게서 권세를 빼앗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탄의 싸움이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고,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 안에서 패배하게 된다.



형체 안으로 묶임을 받는 일이 모든 어두운 영적인 존재의 힘과 권세를 빼앗는다. 영적인 존재는 이제 어떤 창조물 안에서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활동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해야만 하고, 의무 단계에서 섬겨야만 한다. 이로써 성장과정을 거치게 된다. 영적인 존재는 끝없이 긴 오랜 시간에 걸쳐 마지막으로 자유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성숙한 상태에 도달한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결정을 하는 동안에는 퇴보가 없다. 따라서 비록 저항하는 의지의 강한 정도가 곁형체를 정하고, 이로써 묶임을 받는 상태의 고통의 정도를 정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묶인 의지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성장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존재에게 그의 의지에 자유를 주면서, 즉 존재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의지를 존재로부터 철회할 때, 성장이 정지하거나 하나님이 정한 퇴보하는 한계선 까지 다시 퇴보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의 성장과정을 중단시킨다. 존재는 이제 그가 마지막 단계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그가 최종적으로 구원받도록 정해진 새로운 이 땅의 시대에 성장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왜냐면 온전한 사람이 단지 곁형체를 벗을 수 있고, 단지 자신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을 통해 사람 안의 영적인 존재가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굳은 물질을 안으로 새로운 파문을 받는 고통.

B.D. No. 4631

1949년 5월 8일

**굳**은 물질을 안으로 새로운 파문을 받는 영적인 존재가 받는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면 이런 상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는 존재로서 자신을 느끼지만, 그러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로서 그가 가진 것으로 의식하고 있는 그의 의지를 활용할 수 없다. 영적인 존재는 묶여 있고, 원래는 어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무기력과 그의 묶임을 받은 상태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아직 반항을 한다.

인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태를 향해 다가간다. 인류는 아직 이런 운명을 벗어날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이 생각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삶이 결과대로 보응을 받고,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혼이 처한 위험이 말할 수 없게 크다.

그러나 사람은 아직 창조물의 주인이고,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창조물 위에 있고, 자신의 뜻대로 창조물을 활용할 수 있고, 언젠가는 그 자신이 다시 창조물이 될 것이다. 초기에는 움직이지 않는 죽은 물체가 될 것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못하고 머물 수 있다. 그는 언젠가는 그의 현재의 위치보다 훨씬 더 뒤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가 다시 자유의지를 얻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힘을 얻게 되는 인간으로 성장하기까지 끝없이 긴 시간이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지를 이해할 수 없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 지, 의지가 묶임을 받은 가운데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그에게 죽음 후에 혼이 맞이하는 운명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에게 아직 그가 끔찍한 운명을 피하게 해주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에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의 성품이 변하고, 육신의 죽음 후에 빛과 자유의 상태에 처할 권리를 얻는다. 그는 아직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과 자신의 창조주와 자신의 이 땅의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원한다면, 그는 또한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 가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작은 자극을 해준다. 사람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고, 그가 올바른 목표를 갖는 일이 보장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저항을 존중한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반대로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혼이 아주 고통스러운 운명을 맞이하게 하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새로운 파문을 받는 길을 가야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절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다는 일이고,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대로 하나님께 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종말의 때에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단지 소수이다. 그러므로 위험이 아주 크고,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땅의 하나님의 종들은 종말 전의 마지막까지 인간의 혼이 변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혼이 맞이하게 될 끔찍한 운명을 언급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임박한 종말을 알려줘야 한다. 왜냐면 시간이 촉박하고, 훈계와 경고를 받아들이고 선한 의지를 가진 혼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 날이 예상치 않게 올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경고를 받아드리라. 왜냐면 영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고, 너희 자신에 관한 일이고,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있는 너희 혼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 혼이 아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새땅. 창조물. 낙원.

B.D. No. 4369

1948년 7월 10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탁월한 지혜에 합당하게 새 땅이 다시 형성될 것이다. 모든 창조물은 다시 영적인 존재를 모시게 되고, 중단된 성장과정을 이제 계속할 수 있고, 또한 가장 빠르게 마칠 수 있다. 왜냐면 물질이 더 짧은 수명을 갖기 때문이다. 즉 물질이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하고 더 짧은 시간에 생성되고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아주 빠르게 형체를 떠나 다음 형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각각의 창조물의 과제는 다시 한번 다른 창조물을 유지하는 일이 된다.

새 땅의 사람들은 아주 큰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로 끊임없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창조물이 필요하게 되고, 모든 창조물은 그들의 섬기는 과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창조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파문의 심판을 받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를 담고 있는, 거의 파괴할 수 없는 굳은 물질을 제외하고는 물질 자체도 또한 큰 저항력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큰 공홀로 구원해야 할 영적인 존재를 위해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되는 일을 가속화시키지 않았다면, 굳은 물질을 다시 분해하기 위해 끝없이 긴 시간이 필요했다.

(10. 7. 1948) 새 땅에서 영적인 존재의 변형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사람이 이미 동물과 식물 세계에서 아직 갇힌 영적인 존재들이 자원하여 사람에게 복종하는 성숙한 정도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의 사랑을 느끼고 따라서 훨씬 더 쉽게 저항을 포기하고, 비록 그들이 의무의 법칙 아래 행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사람을 섬기고, 그러므로 더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므로 새 땅의 물질은 더 빠르게 사라진다. 다시 말해 새로운 창조물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일이 빠르게 연이어 일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이 보기에 특별하게 매력적이고, 창조물의 다양함과 눈을 즐겁게 하는 형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옛 땅에 살았던, 심판의 날에 휴거한 사람에 속한 사람은 새 땅의 다양성과 영광을 충분히 놀랄 수 없게 된다. 새 땅은 그에게 진정한 낙원이다. 왜냐면 단지 선한 세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력이 영향을 미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잘 깨닫고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아직 옛 땅의 모든 선과 악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는 단지 옛 땅에 대해 듣게 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새 땅의 창조물을 더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있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새 땅을 아직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질 것이다.

이 시간을 경험하는 일이 참으로 가장 힘든 이 땅의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한계를 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류를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가운데 유지하고, 충실하게 이 땅의 끝날까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는 이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이로써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새 땅의 주민들은 모든 것을 잊을 것이다. 왜냐면 축복이 환난의 시간보다 천 배나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알려야만 한다: 견디고 하나님께 충실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원한 상급을 줄 것이다. 그의 사랑은 너희가 힘이 필요할 때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아멘

새 땅에서 계속되는 성장.

B.D. No. 6148

1954년 12월 29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이 땅의 종말이 임하고 이 땅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지라도 그의 성장의 길을 계속 갈 것이다. 반면에 마지막 성장 과정을 갈 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영적인 존재는 다시 퇴보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다시 성장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일은 모든 영적인 존재를 자신의 성숙한 정도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일이다.

이로써 한 성장 시대가 끝이 난다. 그러나 성장의 반복은 중단되지 않는다. 아직 묶임을 받은 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계속해서 위로 성장해 나가고 인간도 또한 자유의지로 위로 성장할 수 있고 마침내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의 자유의지로 퇴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아래에서 위를 올라가야만 한다. 타락한 존재의 구원은 이 땅이 영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을지라도 중단되지 않고 단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현저하게 교란된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고 모든 영적인 존재가 그의 성숙한 정도에 합당한 곳으로 배치받게 된다.

다양한 창조물 안에서 아직 형체 안에 묶여 있는 영적인 존재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거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일이 또한 눈에 보이는 창조물의 해체와 새로운 땅이 생성되는 일을 요구되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단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영적인 존재가 높이 성장하는 일을 목표로 한다. 영적인 존재가 인간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가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이 땅의 전적인 변화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계획에 따라 높이 성장 과정이 일어나고 모든 영적 구속이 아주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질서에 너무 자주 어긋나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성장 과정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질서에서 벗어난 일을 다시 바로 잡으려면 하나님의 폭력적인 개입이 계속해서 요구 된다. 이 일은 항상 구원시대의 끝과 새로운 구원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고 항상 이 땅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또한 모든 창조물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런 일은 굳은 물질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해방되고 다시 현저하게 느슨해진 형체 안으로 새롭게 묶임을 받고 이미 영원한 기간 동안 묶임을 받고 있던 영적인 존재가 이제 높이 성장하는 일을 시작하는 일을 의미한다. 영적인 존재들은 이런 전환에 감사하는 가운데

수월해지는 일을 느낀다. 이런 이 땅의 표면의 재 형성하는 일은 인간 안에 육신을 입고 실패한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존재에게 성장을 의미한다. 실패한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고 이 땅의 삶에서 위를 추구하는 대신에 항상 낮은 곳을 추구했다. 이런 영적인 존재는 자신이 갈망했던 곳으로 옮겨지고 굳은 물질이 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추구하고 갈망의 대상이었던 물질에 의해 묶임을 받게 된다. 이런 일은 사람이 무시했고 잘못 사용했던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전례 없는 자유의 은혜에 대한 공의한 보상이다. 그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고 이제 이런 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너희 사람들이 한 구원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긴급하게 알려준다. 하나님이 모든 사랑으로 모든 연관관계를 알려주는 지식을 너희에게 주고 원인과 결과와 올바른 이 땅의 삶의 결과와 잘못 된 이 땅의 삶의 결과에 대한 지식을 너희에게 준다. 그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지식을 전하고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지식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너희가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 너희의 자유의지가 유일하게 너희의 믿음을 정하고 너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정한다. 그러므로 이런 정하는 일이 너희의 운명이 된다. 이런 운명이 진실로 새 땅의 낙원에서 영광스러운 운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사랑에 따라 물질 안으로 새롭게 파문을 받으면, 운명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다.

아멘

영적인 세계. 낙원의 상태.

B.D. No. 1812

1941년 2월 15일

**육**신의 죽음은 이 땅 위의 삶의 종료이고, 영원한 가운데 사는 삶의 시작이다. 두가지의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가 있다. 과거에 속한 것이며, 자체가 쇠하는 것인,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써 물질로 된 세계가 있다. 반면에 물질적인 것으로 구성되지 않은 저 세상은 단지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이 최종적으로 극복할 때까지 생각으로 떠돌아다니는 세계이다. 육체는 세상적인 즉 물질적인 창조물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겉 형체를 벗을 때, 혼은 그가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었다면, 물질적인 창조물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영의 나라로 간다. 이 세계는 소원의 세계이다. 모든 혼이 자기가 갈망하는 곳에 거한다. 혼이 낙원에 거하기 원하면, 영원 가운데 삶은 낙원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혼은 마찬가지로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상태는 낙원과 같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욕망이 이런 상태를 물리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영역에서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과거의 속한 것으로 여기며, 그 대신에 단지 영적인 재물을 추구한다. 영적인 재물은 우선적으로 능력의 흐름이다. 영원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이 능력의 흐름을 드러나게 느끼고, 영적인 재물을 높은 곳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깨닫고, 영적인 재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만질 수 없고, 신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단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이 에테르 같은 입자로 되어있고, 단지 느낌으로 깨달을 수 있다. 각 존재들의 사랑의 정도가 이제 혼이 새롭게 거할 영역을 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혼이 베풀기를 자원한다면, 혼이 받기 때문이다. 이제 받고, 주는 일이 존재에게 행복한 일이다. 그는 더 이상 만질 수 있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 단지 삶의 느낌에서 나타나는 귀한 것을 갈망한다. 영원 가운데서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받아, 나누는 것이다. 오직 영적인 것만 갈망하여 받고, 그의 삶의 느낌은 상상할 수 없게 깊이 발전된다. 그러므로 행복이 항상 더 커질 수 있다. 즉 정체상태나 후퇴가 일어나지 않는다. 영원한 화려함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다.

아멘

영의 나라의 서로 다른 영역.

B.D. No. 3316

1944년 11월 3일

**육**체가 죽은 직후 혼은 육체를 떠나 영의 나라로 향한다. 영의 나라는 성숙 상태에 따라 이 땅에서 가깝거나 멀 수 있다. 이는 공간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거리는 서로 다

른 영의 나라의 영역 때문이다. 이 모든 영역들은 영의 나라에 속한다. 왜냐면 영역은 이 땅의 물질 세계의 바깥에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혼이 빛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숙한 혼은 육체가 죽은 후 순식간에 빛의 영역으로 옮겨진다. 왜냐면 성숙한 혼은 이 땅과 빛의 영역과의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도 공간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혼의 성숙 상태가 혼에게 주는 힘으로 충분하다.

반면에 온전하지 못한 혼은 그렇게 빨리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왜냐면 그런 혼은 먼저 자신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할 힘이 없고, 그의 생각이 아직 이 땅의 것들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혼은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므로 오랜 동안 이 땅 가까이에서 머물고, 대부분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에게 속한 환경에 머문다. 결과적으로 혼은 이 땅에서 영의 나라로 바뀐 것을 즉시 느끼지 못한다. 왜냐면 혼에게 자신이 거하는 곳이 아직 세상적이고, 자주 더 이상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이 자신이 이 땅의 사람들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없고 사람들의 주의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이런 상황이 서서히 혼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한다. 이런 깨달음은 혼이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않고 영의 나라에서 이 땅 밖의 영의 나라에서 산다는 깨달음이다. 그러나 혼이 아직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혼은 이런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 혼은 아직 이 땅에 묶여 있고, 이런 상태는 혼에게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왜냐면 혼이 갈망하고 소유한 것으로 믿는 모든 것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은 이제 서서히 이 땅의 재물을 향한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 혼이 이 일에 성공할 때 비로소 혼은 점점 더 이 땅으로부터 멀어지고, 환경이 달라진다. 눈이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고 혼이 성숙한 정도에 따라 단지 영적인 창조물을 보게 된다. 즉 혼이 영적인 시력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온전하지 못한 존재는 비록 영적인 것이 존재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더 성숙한 혼이 이 땅을 떠나면, 영의 나라에서 주변 환경을 즉시 구별할 수 있다. 왜냐면 영의 눈이 혼이 성숙의 결과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혼은 또한 저세상에서 만나는 혼을 깨달을 것이고,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혼은 깨달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성숙하지 못한 혼은 또한 단지 같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어두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혼을 깨닫지만, 그러나 빛이 가득한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빛이 충분한 존재가 심지어 자신의 빛을 감추고 다가갈지라도 그런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영의 눈은 어느 정도의 성숙한 상태에서 비로소 열린다. 그러나 그러면 혼 주위에 빛이 있다. 반면에 볼 수 없는 혼은 영적인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게 된다. 왜냐면 혼에게 영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혼의 욕망에 합당한 이 땅의 것들은 눈 앞에 보인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혼의 욕망을 통해 나타나는 단지 허상이다. 혼이 그것을 잡고 사용하기 원하면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왜냐면 그 것이 헛된 것임을 통해 혼이 이 땅의 일시적인 재물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해야 함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혼이 아직 이 땅의 일시적인 재물을 원하는 동안에는, 어떤 빛의 존재도 혼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물질적인 생각을 가진 혼은 빛의 존재가 겉형체를 입고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때 빛의 존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사람의 기도를 통해 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혼은 비로소 물질에서 돌아서고 영의 나라에서 대

체물을 찾고, 혼을 가르치고 혼에게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줄 준비가 된 존재들이 혼에게 다가간다.

혼이 빛의 존재들의 가르침을 더 자원하여 영접할수록, 더 빠르게 혼의 영의 눈이 열린다. 혼은 이제 어두움을 벗어난다. 혼은 빛을 받고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간다. 혼은 길을 간다. 그러나 이 길은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또한 혼이 물질적인 재물을 추구하는 끈기에 따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혼이 빛의 존재에 의해 순수한 진리로 인도받을 수 있기 위해, 이제 저세상에서 아직도 영의 어두움 속에서 견고 있는 궁핍한 혼들에게 지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기 위해 극복할 때까지 혼은 이 땅에 묶여 있게 된다.

아멘

창조의 목적, 성장과정.

B.D. No. 5703

1953년 6월 21일

**너**희가 볼 수 있는 모든 창조물을 가진 세상은 단지 하나의 목적을 섬긴다. 이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존재의 귀환이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각각의 입자나 또는 영의 불씨로서 항상 자신의 거처를 바꾸는 가운데 자신의 걸형체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다시 서서히 성숙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 정도에 도달하기 까지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고 있다. 이런 성장 정도에 도달하면 영적인 존재가 인간 안의 혼으로 육신을 입는 일이 가능하게 되고, 이 가운데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귀환이 자유의지로 일어나야 한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에 영적인 존재가 간 길은 끝없이 먼 길이다. 이 길은 제한이 없는 묶임의 고통 가운데 시작되어, 결국에 가서 속박이 점점 더 풀어졌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항상 묶인 상태에 머물렀고, 사람이 이제 원한다면, 이런 묶임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혼에 따라 너희에게 보이는 이 모든 창조물들의 과정을 거쳤고,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너희의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너희는 단지 아직 이 땅에서 마지막 과제를 완수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세상적인 사슬을 벗어나고, 너희가 언젠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을 통해 자유의지로 떠난 나라에 다시 거할 수 있게 된다. 너희의 이 땅의 마지막 과제는 자유의지로 영원한 신성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이다. 너희가 한때 하나님을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으로 섬기야 하고, 너희가 한때 사랑이 없이 다스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을 통해 다시 온전해져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대항한 너희의 죄를 통해 모든 신적인 속성을 스스로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빛과 힘으로 충만하게 돼야 한다. 너희는 전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에 의해 생성된 존재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너희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다. 왜냐면 너희에게 사랑이 전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이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을 수 없고, 비록 자신의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모든 저항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위로 성장하는 과정은 너희가 보는 모든 것 안에서 일어나고, 너희가 보는 모든 것을 통해 일어난다.



이를 통해 너희에게 간략하게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했고 또한 너희의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했다. 너희는 이 땅의 마지막 목표를 의식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이를 아는 일이 허용되어야 하고,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 모두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기를 원하고, 너희의 사랑받기를 원한다. 왜냐면 그가 너희가 원래의 상태에 다시 도달할 정도로 자신의 사랑의 힘을 흘려줄 수 있기 위해서이고, 너희가 그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으로부터 너희가 정함받은 대로 그와 함께 그의 뜻대로 이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기 위해 너희의 아버지 집의 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이런 지식과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자신의 말씀을 통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이 피할 수 없게 너희가 자원하여 버렸던 성숙한 정도에 도달하게 한다. 하나님은 단지 너희가 너희의 성품을 사랑하는 변화시키는 일을 요구한다. 너희가 이런 뜻을 성취시키면, 너희의 높은 성장이 보장되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완수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너희가 한때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너희는 이제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머물게 된다.

아멘